

202307

수
마
나
미
영
심
마
미



20
23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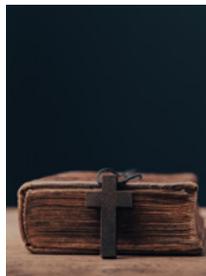
부서		주제	날짜	장소
영유아 유치팀	영아 1·2부	믿음 싹싹 소망 아이 (창 12:1)	7/15(토)	1교육관 1F 영아부실
	유아 1·3부		7/8(토)	선교관 1F 유치부실
	유치 1·3부		7/1(토)	
아동팀	유년 1·2부	아민따 스탬프 투어 (창 12:1)	7/28(금)-7/29(토)	소망수양관
	초등 1·2부		8/10(목)-8/12(토)	
	소년 1·2부		8/3(목)-8/5(토)	
	영어아동부	Daniel's Courage (히 13:5)	8/19(토)-8/20(주일)	2교육관 B1 제1예배실
청소년팀	중등 1·2부	페이스 타임 (창 12:1)	8/3(목)-8/5(토)	소망수양관
	고등 1·2부		7/27(목)-7/29(토)	
	드림부		7/21(금)-7/22(토)	
대학부		일어나 함께 가자 (아 2:10)	8/17(목)-8/19(토)	소망수양관
청년부		사랑...그게 뭔데 날 울려 (아 6:3)	8/24(목)-8/26(토)	
청년플러스		인생경영 II : 유일한 소망 (사 60:1~2)	7/21(금)-7/22(토)	

※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안내를 따라 주세요.

CONTENTS

July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인도하십 따라	2
깊어지는 영성	소망의 근원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토마스아 켈피스	6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7월 본문	역대상·욥기 1주(7/3) 2주(7/10) 3주(7/17) 4주(7/24) 5주(7/31)	16
FAITH		
뜨겁게 온 편지	난민 선교 동역자님들께 최바나바·전보배	60
소망사랑방	그리고 밤모퉁에서 김양자	98
전도서산책	모순이 가득한 인생 이순기	136
공간공감	구세군 대전영문 홍성찬	174
이달의 기도	얼굴 빛을 드사	186
COMMUNICATION		
문화읽기	<슬픔의 삼각형>을 통해 본 자본주의라는 이상 황영미	188
소망마당	기도하는 자리에 교회학교	192
그림묵상	세례받은 예수님 이호연	196
예배자의 길	7월 우리의 고백 박미아·최순옥·허유선	198
뿌리를 찾아서	경건한 열망 박경수·이근복	202
가정예배 오답노트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신형섭	206
돌봄의 창	하나님이 하시는 일 김지현	210
소망뉴스		214



인도하심 따라

좀 더 인내하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성실히 기도하며 주님 뜻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조급하였고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근원

글 김경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강도가 어떠한고 모양이 어떠한지 인생 자체는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기다림은 또 다른 기다림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졸이며 기도해야 하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또 우리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 부활해서 주님께 받을 보상이 있기도 합니다(단 12:13).

성경에는 기다림을 거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백세가 될 때까지 그는 견디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은 70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고, 다윗은 일찍이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피난과 도망을 거듭하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현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고, 언젠가는 채워지고 완성될 미래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항상 시간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7편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 27:14) 원수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죽이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은덕 입을 것을 확신합니다. 극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비워 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립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공훈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에 3:21-22, 새번역) 어렵고 힘듭니다. 조금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근심하게 하시지만 곧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기에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기다림이고, 믿음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희망을 품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자 믿음입니다. 성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코 좋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좋은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선포합니다(사 30:18).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에 3:4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며 기도로 나아가는 7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시 130편 中)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글 토마스 아 캠퍼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여,
부디 은총을 베푸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깃들어
마지막 날까지 삶으로 피어오르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갈망하게,
당신께 가장 합당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의 뜻이 당신의 뜻을 따르며
당신의 뜻에 동의하게 하소서.
당신과 따르고자 하는 이와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소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이와 있을 때도
우리과 함께하소서.

우리가 오직 당신의 뜻을 바라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미움과 천대를
받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께서는 우리 마음의 참된 평화이며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당신 없이는 모든 일이 고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참되며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옳고 선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빛 안에 거닐게 하시기에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 설사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한다 하셔도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당신께서 펼치시는 선과 악의 손길을,
쓰라리고 아픈 손길과 달콤한 손길을,
기쁨의 손길과 아픔의 손길을 차별 없이
한마음으로 받도록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WORD

역대상 · 욕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출기 5:1-16**

본문 14:1-20 27:1-28:15 29:1-30

말씀 속으로

- 1 나는 부르짖어 보았나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으나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Call if you will, but who will answer you? To which of the holy ones will you turn?"
-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려워진 자를 멸하니
Rage kills a fool, and every day is the simple.
- 3 내가 미련한 자가 책망하라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거
I myself have seen a fool taking heed, but suddenly his house was cursed.
-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떠돌아나 구하는 자가 없도라
His children are far from safety, crumbled in court without a defender.

16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목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 | 본문의 의미를 살피며 말씀을 본문의 흐름 속에서

1. 헬라어에 익숙한 어휘 이해하기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그리스어의 변형으로,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2. 본문의 주제와 맥락 이해하기

본문의 주제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헬라어 학습에 필수적이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3. 헬라어 문법 이해하기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4. 헬라어 문법 이해하기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말씀 안에서

적용 | 헬라어 문법 이해를 위한 질문

1. 헬라어 문법 이해하기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2. 헬라어 문법 이해하기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헬라어 문법은 헬라어 학습의 기초이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 질문 |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묵상 또는 찬양을 위한 제자대표

안 O 기도 O 유동 O 김명환 유동 O 연 O 권영환 유동 O

역대상(4~9장)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을 사로잡는다.

70년의 유배 생활은 이들 마음을 흠어지게 하는 데 충분한 세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는 뿔뿔이 조각난 백성의 마음을 모아 기억하는 자리로 부르신다. 역대기서를 목상하는 우리는 1장, 2장, 3장 ... 9장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살펴며 귀환 공동체가 머문 자리에 함께 선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족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진다.

그중에는 유다 자손이 주요하게 꼽히며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 왕 시대로 시계추가 올라간다.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족보 한편에는 베냐민 자손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시기에 이들은 유다 지파 편에 선다.

성경은 형제와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이룬 베냐민 후손의 역사를 기록하며 -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의도가 강력했다고는 하지만 - 요나단에게 호의를 베푼 다윗에게 보답한 면모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어찌 보면 어린 다윗에게 들린 물뿔돌 다섯 개와 같고, 익명의 소년이 건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도 같은 소박한 일이 길이길이 남겨지며 오래도록 기억된다.

다윗 왕 때를 기준 삼아 역사를 평가하고, 희망찬 미래를 일궈 가도록 이끄는 저자의 시선에 레위 후손도 당당히 한몫을 차지한다. 무려 81절에 달하는 소개와 더불어 포로에서 귀환한 첫 번째 백성으로 지목되는 레위 지파는(6장; 9:2), 나라의 재건이라는 비전 안에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여호와와의 음성을 중심에 세운다. 황폐해진 땅을 경작하며 무너진 성전을 증축하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다시 밟은 고국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 작은 것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대적의 짐승을 죽이고, 원수를 사로잡고, 승리를 거머쥐도록 이끈다(5:20-22). 반면에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 작은 것을 잊고 살 때에 스스로 심판의 불이 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발견하는 복된 자들이다.

먼저는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형제간의 연합에서.

평화의 잔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두를 초대하신다.

유다, 베냐민, 레위 후손을 향한 우선적인 관심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이 유일한 관심은 아니다. 역대기의 긴 족보는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며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전해 준다.

그러니 긴 족보에 머뭇거리기를 멈추고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남겨져야 할지 질문하며 나아가 보자.

그 작은 마음에 하늘의 아버지가 움직이시고 그의 뜻을 따라 모두를 인도해 가신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일 주간		
1(토)	욥기 5:1~16	엘리바스의 격언 1
3~8일 주간		
3(월)	욥기 5:17~27	엘리바스의 격언 2
4(화)	역대상 4:11~23	유다 자손의 족보
5(수)	4:24~43	시므온 자손의 족보
6(목)	5:1~10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 - 르우벤 지파
7(금)	5:11~22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 - 갓, 므낫세 반 지파
8(토)	욥기 6:1~13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1
10~15일 주간		
10(월)	욥기 6:14~30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2
11(화)	역대상 5:23~26	요단 동편 지파의 순종과 불순종
12(수)	6:1~15	레위의 가계 1
13(목)	6:16~30	레위의 가계 2
14(금)	6:31~48	레위의 가계 3
15(토)	욥기 7:1~21	욥의 한탄
17~22일 주간		
17(월)	욥기 8:1~10	빌닷의 발언 1
18(화)	역대상 6:49~60	아론의 직계 혈통 및 거주지 소개
19(수)	6:61~81	레위 자손의 거주지
20(목)	7:1~13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자손의 족보
21(금)	7:14~29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의 족보
22(토)	욥기 8:11~22	빌닷의 발언 2
24~29일 주간		
24(월)	욥기 9:1~24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1
25(화)	역대상 7:30~40	아셀 자손의 족보
26(수)	8:1~28	사울 이전의 베냐민 자손 족보
27(목)	8:29~40	사울과 사울 이후의 베냐민 자손 족보
28(금)	9:1~9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목록
29(토)	욥기 9:25~35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2
31일 주간		
31(월)	욥기 10:1~22	욥의 한탄

7

July 2023

SUN

MON

TUE

WED

2

3

4

5

9

10

11

12

16

17

18

19

권사회 월례회

2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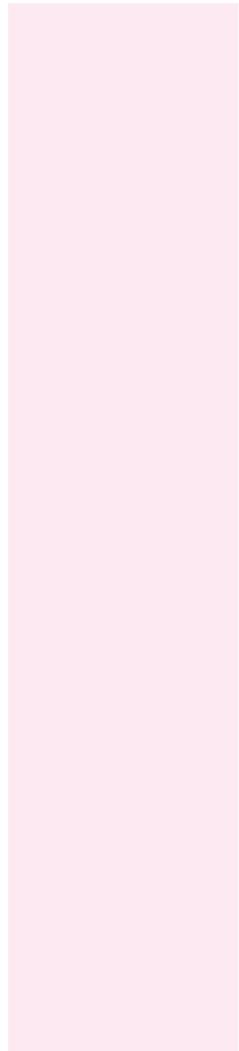
24/31

25

26

8	S	M	T	W	T	F	S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1
6	7 여전도회 연합예배	8
13	14	15
20	21 여름신앙강좌 (~8/18, 매주 금요일)	22
27	28	29



1

욥기 5:1~16

토요일

오늘의 찬송 276 아버지여 이 죄인을

말씀 속으로

- 1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Call if you will, but who will answer you? To which of the holy ones will you turn?”

-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나라

Resentment kills a fool, and envy slays the simple.

- 3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I myself have seen a fool taking root, but suddenly his house was cursed.

-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His children are far from safety, crushed in court without a defender.

-
- 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밧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The hungry consume his harvest, taking it even from among
thorns, and the thirsty pant after his wealth.

- 6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For hardship does not spring from the soil, nor does trouble
sprout from the ground.

- 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
니라

Yet man is born to trouble as surely as sparks fly upward.

- 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But if it were I, I would appeal to God; I would lay my cause
before him.

- 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He performs wonders that cannot be fathomed, miracles that
cannot be counted.

1

— 토

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He bestows rain on the earth; he sends water upon the countryside.

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The lowly he sets on high, and those who mourn are lifted to safety.

12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He thwarts the plans of the crafty, so that their hands achieve no success.

13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He catches the wise in their craftiness, and the schemes of the wily are swept away.

14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시느니라

Darkness comes upon them in the daytime; at noon they grope as in the night.

15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He saves the needy from the sword in their mouth; he saves them from the clutches of the powerful,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So the poor have hope, and injustice shuts its mout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바스의 독설이 이어집니다(1~7).

엘리바스의 독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격언이 보다 날카로워집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1절) 욥이 죄를 짓고 고난당하고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하소연을 들어주실 수 없다는 일침입니다. 엘리바스의 판단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손들이 대대로 망하고, 추수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수확물을 빼앗기는 비극적인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같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3~5절). 누구 하나 선뜻 구해 주는 이가 없는 미련한 자의 삶이 지금의 욥과 꼭 닮아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사람은 본래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독설을 당당하리만치 들려줍니다(7절). 당차고 빈틈 없어 보이는 발언에 수궁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물질의 변영으로 축소시키는 어리석음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엘리바스에게 보입니다.

2. 겸손한 자에게 지혜의 길이 열립니다(8~16).

엘리바스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8절) 그러니까 지금껏 욥이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고난을 거듭한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은 낮은 자, 특히 가난한 자의 편에서 강한 자의 횡포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활하고 간교한 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 대지를 적시고 물을 머금은 땅에 싹이 돋듯이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여 흘러갑니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엘리바스는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를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맞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셈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은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잠시 드러난 현상으로 믿음을 판단한 엘리바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니까? 나에게도 엘리바스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며 의로운 눈과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엘리바스는 스스로 갖춘 지식에 당당하지만 겸손하지는 못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겸손히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9:15~17,24 ¹⁵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¹⁶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¹⁷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²⁴ 내가 나쁜 길을 지나가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7/2~8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
신다. (시 25:10)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욥기 5:17~27

월요일

오늘의 찬송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말씀 속으로

- 17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Blessed is the man whom God corrects; so do not despise the discipline of the Almighty.

- 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For he wounds, but he also binds up; he injures, but his hands also heal.

- 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From six calamities he will rescue you; in seven no harm will befall you.

- 20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In famine he will ransom you from death, and in battle from the stroke of the sword.

21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You will be protected from the lash of the tongue, and need not fear when destruction comes.

22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You will laugh at destruction and famine, and need not fear the beasts of the earth.

23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For you will have a covenant with the stones of the field, and the wild animals will be at peace with you.

24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You will know that your tent is secure; you will take stock of your property and find nothing missing.

25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You will know that your children will be many, and your descendants like the grass of the earth.

5:24 우리를
거하는 곳

26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
어올림 같으니라

You will come to the grave in full vigor, like sheaves gathered
in season,

27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
러면 네가 알리라

We have examined this, and it is true. So hear it and apply it
to yourself.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바스의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17~22).

엘리바스는 죄가 없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욥이 죄인이라는 선고를 내리며 현재의 불행은 욥이 걸어온 삶의 행보를 보여 주는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표현하고자 4장부터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훈계 안에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에 인생이 비유되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앞세워집니다. 물론 그의 발언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엘리바스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여섯 가지 환난으로부터 능히 구하시고,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전하며 상투적인 위로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에, 일곱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현실은 사실상 여호와와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2. 욥에게 상심의 고난이 함께합니다(23~27).

본 단락은 욥의 처지와는 전혀 다른 반전의 상황을 담습니다. 들에 있는 돌과 화친을 맺고 들 짐승도 해하지 않는 삶,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막 속에서 후손이 날로 번성하는 삶, 끝내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편안히 죽음에 이르는 삶이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욥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전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충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27절) 그러면서도 엘리바스는 마음 한편에 욥의 상황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도리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입장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친구 욥을 향하여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만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은 물질의 상실이나 육체의 아픔보다도 가시가 되어 날라오는 친구들의 말로 인한 상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엘리바스의 격언에는 까닭 없는 믿음을 부정한 사탄의 논리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의 번영으로 축소시키는 사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니까?
2. 욥기서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기록하며 말 속에 담긴 근본적인 생각을 들추어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주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가며 생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8~13 ⁸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⁹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¹⁰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¹¹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¹²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¹³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4

역대상 4:11~23

화요일

오늘의 찬송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말씀 속으로

- 11 수하의 형 글룹이 므힐을 낳았으니 므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Kelub, Shuhah's brother, was the father of Mehir, who was the father of Eshton.

- 12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Eshton was the father of Beth Rapha, Paseah and Tehinnah the father of Ir Nahash. These were the men of Recah.

- 13 그나스의 아들들은 옷니엘과 스라야요 옷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The sons of Kenaz: Othniel and Seraiah. The sons of Othniel: Hathath and Meonothai.

- 14 므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십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Meonothai was the father of Ophrah, Seraiah was the father of Joab, the father of Ge Harashim. It was called this because its people were craftsmen.

15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The sons of Caleb son of Jephunneh: Iru, Elah and Naam, The son of Elah: Kenaz.

16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The sons of Jehallelel: Ziph, Ziphah, Tiria and Asarel.

17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The sons of Ezra: Jether, Mered, Ephraim and Jalon. One of Mered's wives gave birth to Miriam, Shammai and Ishbah the father of Eshtemoa.

18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His Judean wife gave birth to Jered the father of Gedor, Heber the father of Soco, and Jekuthiel the father of Zanoah.) These were the children of Pharaoh's daughter Bithiah, whom Mered had married.

19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The sons of Hodiah's wife, the sister of Naham: the father of Keilah the Garmite, and Eshtemoa the Maacathite.

20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헛과 벤소헛이더라

The sons of Shimon: Amnon, Rinnah, Ben-Hanan and Tilon. The descendants of Ishi: Zoheth and Ben-Zoheth.

21 유다의 아들 셸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이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The sons of Shelah son of Judah: Er the father of Lecah, Laadah the father of Mareshah and the clans of the linen workers at Beth Ashbea,

22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Jokim, the men of Cozeba, and Joash and Saraph, who ruled in Moab and Jashubi Lehem. (These records are from ancient times.)

23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They were the potters who lived at Netaim and Gederah; they stayed there and worked for the king.

4:23 수풀과 산울

'수풀'로 번역된 '네타임'은 초목이라는 의미이고, '산울'로 번역된 '게데라'는 양의 우리 혹은 돌담을 두른 곳이라는 뜻을 가진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지역명 그대로 나타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 후손의 소개가 이어집니다(11~14).

유다 후손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계속됩니다. 본 단락은 ‘레가’와 ‘게하라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계보가 삽입됩니다. 학자들은 12절에 나타난 ‘레가’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크게는 지역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이방의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역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앞서 기록된 족보들이 각 지파와 그들의 거주지를 차례로 설명한 흐름에 비추어 ‘레가’ 역시 지역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하라심’의 경우는 15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요압이 도시의 창건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레가와 게하라심 지역에 산 유다의 후손을 가리켜 성경은 공장이었다고 밝힙니다(15절).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숙련된 기술을 따라 하나의 조합을 형성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 땅을 개간하고 정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15~23).

레가와 게하라심 지역에서 길드를 형성하며 산 유다의 후손이 소개되었다면(11~14절), 본 단락에는 유다 지파의 주요 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즉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가 지명된 점이 눈길을 끄니다(15절). 21절 이후로는 유다의 아들 중에서 ‘셀라’ 자손이 언급되는데 그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2:3; 창 38:5). 셀라의 후손 중에는 세마포를 짜는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 있었는가 하면, 왕실에서 사용될 도예를 만들어 공급하는 기술공이 함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21,23절). 왕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주춧돌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한편 역대기 저자는 모압에 가서 일했거나 혹은 아내를 구하고 돌아온 자손을 이야기하며 유다 백성이 순수 혈통으로만 구성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합니다(22절). 그럼에도 ‘야수비네헴’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력을 밝히며 고국에 돌아온 귀환 공동체로 하여금 살아갈 터전을 정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도록 격려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2장 55절은 서기관이 배출된 후손을 소개한다면 본문은 숙련공의 집안을 언급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인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 역대기 저자는 나라의 재건 앞에 땅을 정비하는 기초적인 작업부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일의 순서를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행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9~12 ⁹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¹⁰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¹¹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¹²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5

역대상 4:24~43

수요일

오늘의 찬송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말씀 속으로

24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The descendants of Simeon: Nemuel, Jamin, Jarib, Zerah and Shaul;

25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밍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Shallum was Shaul's son, Mibsam his son and Mishma his son.

26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The descendants of Mishma: Hammuel his son, Zaccur his son and Shimei his son,

27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많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Shimei had sixteen sons and six daughters, but his brothers did not have many children; so their entire clan did not become as numerous as the people of Judah.

28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They lived in Beersheba, Moladah, Hazar Shual,

29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Bilhah, Ezem, Tolad,

30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Bethuel, Hormah, Ziklag,

31 벵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벵비리와 사이라임이니 다윗 왕 때 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Beth Marcaboth, Hazar Susim, Beth Biri and Shaaraim. These were their towns until the reign of David.

32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젠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Their surrounding villages were Etam, Ain, Rimmon, Token and Ashan - five towns -

33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and all the villages around these towns as far as Baalath. These were their settlements. And they kept a genealogical record.

4:24 아립

역대기서는 '아립'을 아립으로 기록한다(창 46:10; 출 6:15; 민 26:12).

4:27

역대기 저자는 시므온의 자손 중 시므이에게서 난 많은 자녀를 소개한다. 반면에 자녀가 얼마 되지 않은 시므이 형제에 관한 기록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만큼 번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문을 통하여 지파가 유지된 사실을 알린다.

34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Meshobab, Jamlech, Joshah son of Amaziah,

35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리아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Joel, Jehu son of Joshibiah, the son of Seraiah, the son of Asiel,

36 또 엘료에내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also Elioenai, Jaakobah, Jeshohaiah, Asaiah, Adiel, Jesimiel, Benaiah,

37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and Ziza son of Shiphi, the son of Allon, the son of Jedaiah, the son of Shimri, the son of Shemaiah,

38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The men listed above by name were leaders of their clans. Their families increased greatly,

39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and they went to the outskirts of Gedor to the east of the valley in search of pasture for their flocks.

-
- 40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They found rich, good pasture, and the land was spacious, peaceful and quiet. Some Hamites had lived there formerly.

- 41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The men whose names were listed came in the days of Hezekiah king of Judah. They attacked the Hamites in their dwellings and also the Meunites who were there and completely destroyed them, as is evident to this day. Then they settled in their place, because there was pasture for their flocks.

- 42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웃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And five hundred of these Simeonites, led by Pelatiah, Neariah, Rephaiah and Uzziel, the sons of Ishi, invaded the hill country of Seir.

- 43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They killed the remaining Amalekites who had escaped, and they have lived there to this da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시므온의 주요 자손이 소개됩니다(24~33).

1-23절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소개하였다면, 24절부터는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시므온 지파가 거론된 흐름을 두고 학자들은 두 지파의 연결성과 함께 각각 독립적인 지파로 인정하고자 한 저자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28~33절에 언급되는 성읍은 유다 남쪽 끝에 위치하여 끝내는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편입된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와 달리 역대기서는 이 지역이 시므온 지파의 소유임을 강조하며, 나름대로 두 지파 간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인들이 상당수 거주하였는데(느 11:26-29), 이곳을 시므온 지파의 소유로서 기록하는 28절 역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구분하고자 한 시선을 느끼게 합니다. 한마디로 세력이 약해 유다 지파로 편입된 시므온 지파이지만 각 지파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통일 왕국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2.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34~43).

시므온 지파 중에는 나름대로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한 가문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사실이 41절에서 명백하게 증명되는데, 본 단락은 유다 지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세력을 이어 간 시므온 지파의 주요 족장과 거주지를 기술해 줍니다. 이때에 그들을 가리켜 “매우 번성했다”는 평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반을 든든히 세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차지한 성읍에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이 있었는가 하면, 양 떼를 먹일 만큼 푸른 목장도 있었다고 전해줍니다(40~41절).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시므온 자손이 아말렉 족속과 벌인 전쟁은 사뭇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기술하며 ‘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가 동일하게 인용되며 시므온 지파를 통하여 아말렉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42~43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시므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후손으로 흘러가며 새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역대기 저자는 강성한 유다 지파에 비해 약한 시므온 지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2. 시므온은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 추장을 잔인하게 복수하여 비극적인 미래를 예고받습니다(창 49:5~7). 그럼에도 후손이 강성하여 좋은 거주지를 차지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기록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3:1~5 ¹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 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²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³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⁴ 큰 물 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엄위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엄위하십니다. ⁵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6

역대상 5:1~10

목요일

오늘의 찬송 35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말씀 속으로

- 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The sons of Reuben the firstborn of Israel (he was the firstborn, but when he defiled his father's marriage bed, his rights as firstborn were given to the sons of Joseph son of Israel; so he could not be listed in the genealogical record in accordance with his birthright,

- 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and though Judah was the strongest of his brothers and a ruler came from him, the rights of the firstborn belonged to Joseph) -

- 3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the sons of Reuben the firstborn of Israel: Hanoch, Pallu, Hezron and Carmi,

4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곱이요 그의 아들은 시
프이요

The descendants of Joel: Shemaiah his son, Gog his son,
Shimei his son,

5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
이요

Micah his son, Reaiah his son, Baal his son,

6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앗
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and Beerah his son, whom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took
into exile. Beerah was a leader of the Reubenites.

7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
가라와

Their relatives by clans, listed according to their genealogical
records: Jeiel the chief, Zechariah,

8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
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다다랐고

and Bela son of Azaz, the son of Shema, the son of Joel. They
settled in the area from Aroer to Nebo and Baal Meon.

6 — 목

- 9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To the east they occupied the land up to the edge of the desert that extends to the Euphrates River, because their livestock had increased in Gilead.

- 10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During Saul's reign they waged war against the Hagrites, who were defeated at their hands; they occupied the dwellings of the Hagrites throughout the entire region east of Gilea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파들이 소개됩니다(1~6).

4장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나열했다면, 5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소개합니다. 1~2절의 괄호 안에 기입된 내용을 두고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두 구절이 장자인 르우벤이 지파 목록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르우벤이 장자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건은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은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간 사실을 두 번에 걸쳐 알리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로 편입된 지파의 권리 또한 배척하지 않는 의도를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조상으로 삼는 두 지파가 이후 북이스라엘 주요 지파로 자리매김하는 까닭입니다. 한편 3절에는 르우벤 아들이 차례로 소개된 후, 6절에 이르러서는 그의 후손이 앗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역사가 기록됩니다.

2. 르우벤 지파의 과거가 소환됩니다(7~10).

흥미롭게도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잡혀간 후손의 미래를 앞서 기술한 후에 이들의 찬란했던 과거를 소환합니다. 먼저는 르우벤 지파의 주요 족장들에 관한 족보가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7~8절), ‘여이엘’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라는 우두머리의 이름 속에서 조상에 이어 귀환 공동체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후손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과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며 세력을 확장했고, 번성한 그들의 땅에는 가축이 함께 번식하는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9절). 마지막으로 10절은 르우벤 자손이 벌인 정복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듯이 흠여졌던 백성이 이제 다시 모였으니 남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르우벤 개인을 보면 그의 범지는 심각하나 지파 전체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개인의 죄를 사하시고 공동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까?
2. 연대순으로는 6절이 10절 이후이지만 기술은 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환 공동체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이 들니까? 좌절하고 낙심한 중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1~2,8~9 ¹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²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대! 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 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⁹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 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7

역대상 5:11~22

—
금요일

오늘의 찬송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말씀 속으로

- 11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The Gadites lived next to them in Bashan, as far as Salecah:

- 12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뎨이요 또 아내와 바산에 산 사뎨이요

Joel was the chief, Shapham the second, then Janai and Shaphat, in Bashan,

- 13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므술람과 세바와 요래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Their relatives, by families, were: Michael, Meshullam, Sheba, Jorai, Jacan, Zia and Eber - seven in all,

- 14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새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These were the sons of Abihail son of Huri, the son of Jaroah, the son of Gilead, the son of Michael, the son of Jeshishai, the son of Jahdo, the son of Buz,

15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Ahi son of Abdiel, the son of Guni, was head of their family.

16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The Gadites lived in Gilead, in Bashan and its outlying villages,
and on all the pasturelands of Sharon as far as they extended.

17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All these were entered in the genealogical records during the
reigns of Jotham king of Judah and Jeroboam king of Israel.

18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
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이라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had 44,760 men ready for military service - able-bodied men
who could handle shield and sword, who could use a bow, and
who were trained for battle.

19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They waged war against the Hagrites, Jetur, Naphish and
Nodab.

5:11 바산
풍요롭기로 유명한 지
역이다.

20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They were helped in fighting them, and God handed the Hagrites and all their allies over to them, because they cried out to him during the battle. He answered their prayers, because they trusted in him.

21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나귀 이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았고

They seized the livestock of the Hagrites - fifty thousand camels, two hundred fifty thousand sheep and two thousand donkeys. They also took one hundred thousand people captive,

22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and many others fell slain, because the battle was God's. And they occupied the land until the exil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갓 지파의 후손이 소개됩니다(11~17).

5장에 이르러서는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중에서 르우벤 계보가 우선적으로 나오며(1~10절), 첫머리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었으나 아버지에게 행한 불의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후손이 이어진 내력을 밝히며 불의를 행한 개인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이제 르우벤 다음으로 갓 지파가 다루어지는데, 기존의 흐름과 동일하게 후손과 그들의 거주지가 차례로 나열됩니다. 본 단락에서는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지목하는 17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작성된 족보를 바탕으로 역대기 저자가 본 단락을 구성하였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데, 연대순으로는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이 앞서나 요담을 앞에 둔 것은 남유다를 향한 저자의 우선적인 관심을 반영한다고 이해됩니다.

2.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18~22)

길르앗,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하여 하갈 족속과 벌인 전쟁이 기술됩니다. 먼저는 군사에 징집된 용병의 계수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단 동편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비결이 사람의 힘이나 모인 장병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 도우심’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했고 간절히 부르짖자 전쟁터에 임한 용사의 두 배에 달하는 십만 명의 적군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짐승만도 낙타가 오만 마리, 양이 이십오만 마리, 나귀가 이천 마리에 달합니다(21절). 여기에 죽은 하갈 사람도 상당했다는 구절은 승리의 원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20절) 4장은 아베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지막이 읊조린 기도문을 삽입하고 있다면, 5장에는 한 공동체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여호와와 은혜를 전합니다. 실로 전쟁도,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2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족보가 나열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은 공동체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여호와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역대기의 주요 주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사모합니다.
2. 역대기 저자는 과거의 역사를 소환하며 ‘하나님께 말미암았다고’ 평가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것임을 알리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4:4~8 ⁴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⁵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⁶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⁷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⁸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8

욥기 6:1~13

토요일

오늘의 찬송 365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If only my anguish could be weighed and all my misery be placed on the scales!

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 하였구나

It would surely outweigh the sand of the seas - no wonder my words have been impetuous,

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The arrows of the Almighty are in me, my spirit drinks in their poison; God's terrors are marshaled against me,

-
-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Does a wild donkey bray when it has grass, or an ox bellow when it has fodder?

- 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Is tasteless food eaten without salt, or is there flavor in the white of an egg?

- 7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I refuse to touch it; such food makes me ill.

- 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Oh, that I might have my request, that God would grant what I hope for,

-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that God would be willing to crush me, to let loose his hand and cut me off!

-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Then I would still have this consolation - my joy in unrelenting pain - that I had not denied the words of the Holy One.

-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한 것기에 그저 참겠느냐

What strength do I have, that I should still hope? What prospects, that I should be patient?

-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Do I have the strength of stone? Is my flesh bronze?

-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Do I have any power to help myself, now that success has been driven from m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1~7).

재앙에 재앙이 거듭되자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3장). 어찌 세상에 태어나 인생의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 항변한 셈입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엘리바스가 발언합니다(4~5장). 그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욥이 대답합니다. “아, 내가 겪은 고통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2~3절) 친구들의 눈에 욥은 그저 불평하고 반항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욥에게는 그것만이 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조차 쉬이 넘어갈 수 없게 된 불행한 처지를 토로하며 부디 친구들만이라도 자신의 결백한 믿음을 알아달라는 호소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욥의 울부짖음 앞에서 성급히 판단하고 정죄한 엘리바스의 언어가 새삼 무색해집니다.

2. 욥의 항변은 믿음의 표현입니다(8~13).

욥이 엘리바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10절) 따가운 시선이 에워싸고, 정죄와 비판이 가득한 이때에도 욥은 당당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당당함은 엘리바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일시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듯 설명해 왔지만, 욥은 이날 이때까지 삶으로 의로운 믿음을 증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음을 외친 욥의 탄식은 믿음이 정말 없거나 혹은 믿음을 저버린 까닭이 아니라, 침묵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외침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욥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믿음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며(1:8), 진정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엘리바스는 욥의 속마음보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윤리적인 행실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보도록 안내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믿음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깨달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4:23~26 ²³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²⁴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²⁵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쳐졌습니다. ²⁶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난민 선교 동역자님들께

글 최바나바·전보비 (그리스 선교사)



Thessaloniki에서 그리스정교회^{Orthodox}의 부활절 스케치와 단상을 올립니다. 올해 4월 16일은 그리스 동방정교회 부활절입니다. 서방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 모두 춘분이 지난 뒤,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첫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서방교회와 달리 그레고리우스력¹을 쓰는 대신 그보다 더 오래 된 달력인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절 날짜가 일주일에서 4주일까지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같은 날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 토요일 밤 12시 직전에는 아궁이의 불은 물론 전등불까지 모든 불이 꺼집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손에 새로운 불을 받을 초를 하나씩 들고 예수 부활 소식을 기다립니다. 자정이 되면 교회의 어두운 지성소에서 새로운 불이 밝혀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² $\mu\iota\tau\acute{o}\varsigma \text{ \text{A}\nu\acute{\epsilon}\sigma\tau\eta\iota}$! 그리스도스아네스티! 하는 신부의 힘차고도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호응하여 교인들은 모두 목청을 다하여 “참으로 부활하셨네” $\text{\text{A}\lambda\eta\theta\acute{\iota}\nu\alpha\varsigma \text{ \text{A}\nu\acute{\epsilon}\sigma\tau\eta\iota}}$ 알리소스아네스티! 하고 화답합니다.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지성소에서부터 교회 본당 쪽으로 불의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폭죽이 터지며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자동차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립니다. 곧이어 교회에서 집으로 향하는 촛불 행렬이 골목마다 길게 이어집니다. 이 순간이 축제의 절정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성찬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에 남지만, 자정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예배는 거의 두 시간 진행됩니다.

온갖 꽃들의 축제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 부활절 일요일 아침, 숯불에 어린양을 통째로 굽기 위해 피워 놓은 모닥불 연기가 들뜬에 가득합니다. 맛있는 추레키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게 물들인 달걀을 나눠 먹습니다. 곳곳에서는 술판과 춤판이 벌어집니다. **부활절 인심은 푸근합니다. 자나는 나그네나 외국인에게도 맛있게 구운 양고기와 아껴 둔 질 좋은 포도주를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고향 사람과 외지인의 구분도, 그리스인과 외국인의 구분도, 남녀노소의 구분도 모두 없으며 이날만큼은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부활절을 통해 자신들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외국인도 친절하게 대하며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분쟁 등으로 수많은 알바니아인과 불가리아인, 유고슬라비아인 난민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에도, 또 걸프 전쟁의 후유증으로 쿠르드족 난민이 들어왔을 때에도, 최근엔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리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난민촌을 마련해 주었지 내쫓지는 않았습다. 난민들이 구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적잖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도 해당 민족의 수준이 낮아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그러는 것이라고 너그럽이 이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스가 인도주의적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에 비록 작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은 아니지만 발칸반도에서 맹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유재원 교수의 그리스 부활절 자료)

그리스 전 국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제로서 즐기는 모습이 내심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지만, 날로 세속화되어 가는 성탄절과 부활절 분위기를 보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목상해 봅니다. 남은 그루터기에도 새순이 돋고 봄이 오듯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바른 복음 앞에 서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기도 제목

1. 협력하는 난민교회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독일로 떠난 여러 이란 아프간 가족들이 현지에 잘 정착하고 믿음생활 잘 하도록
3. 새로 온 난민 형제자매들과의 만남과 교제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4. Grace 선교사의 왼팔과 왼다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5. 저희 부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7/9~15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시 131:3)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욥기 6:14~30

월요일

오늘의 찬송 270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 속으로

-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A despairing man should have the devotion of his friends, even though he forsakes the fear of the Almighty.

-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But my brothers are as undependable as intermittent streams, as the streams that overflow

-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when darkened by thawing ice and swollen with melting snow,

- 17 따듯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but that cease to flow in the dry season, and in the heat vanish from their channels.

18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Caravans turn aside from their routes; they go up into the wasteland and perish,

19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The caravans of Tema look for water, the traveling merchants of Sheba look in hope,

20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They are distressed, because they had been confident; they arrive there, only to be disappointed,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Now you too have proved to be of no help; you see something dreadful and are afraid,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Have I ever said, 'Give something on my behalf, pay a ransom for me from your wealth,

- 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e enemy, ransom me from the clutches of the ruthless?

-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Teach me, and I will be quiet; show me where I have been wrong.

-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How painful are honest words! But what do your arguments prove?

- 26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Do you mean to correct what I say, and treat the words of a despairing man as wind?

- 27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You would even cast lots for the fatherless and barter away your friend.

28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But now be so kind as to look at me, Would I lie to your face?

29 너희는 돌아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Relent, do not be unjust; reconsider, for my integrity is at stake.

30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Is there any wickedness on my lips? Can my mouth not discern mali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의 탄식이 친구들을 향합니다(14~23).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찍는 엘리바스에게 결백함을 주장한 욥이 이번에는 분노를 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라 하면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동지를 위로하며 그 마음에 공감해 주는 일이 당연한 이치인데, 도통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아직 입을 열지 않은 두 친구에게서도 엘리바스와 동일한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답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15절) 그리고는 놀랍게도 세 친구들 안에 도사린 본심을 들추어냅니다. “너희가 내 물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21절) 친구라는 이유로 욥이 당한 화를 자신들도 당하게 될까 염려하며 멀리한다는 셈입니다. 욥이 원한 건 위로의 말 한마디였으나 실오라기 같은 작은 희망마저 저버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도리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고 있습니다.

2. 욥 스스로 결백함을 주장합니다(24~30).

물론 욥이 바란 위로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단순한 호소가 아닙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29절) 회개를 요구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친구의 냉정한 판결에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삶이 옳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떳떳했고, 하나님과 친구들 역시 인정해 주기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온 행보에 자신 있어 하는 욥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과 가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슬픔 중에도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본심이 어쩐지 씩씩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질문하며 ‘옳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2. 믿음의 결백함을 증명할 만큼 욥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억울한 신세에 갇히자 스스로 판결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69~174 ¹⁶⁹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¹⁷⁰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¹⁷¹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¹⁷²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¹⁷³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¹⁷⁴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1

역대상 5:23~26

화요일

오늘의 찬송 420 너 성결키 위해

 말씀 속으로

23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The people of the half-tribe of Manasseh were numerous; they settled in the land from Bashan to Baal Hermon, that is, to Senir (Mount Hermon).

24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These were the heads of their families: Epher, Ishi, Eiel, Azriel, Jeremiah, Hodaviah and Jahdiel. They were brave warriors, famous men, and heads of their families.

25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But they were unfaithful to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prostituted themselves to the gods of the peoples of the land, whom God had destroyed before them.

26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앓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앓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So the God of Israel stirred up the spirit of Pul king of Assyria (that is,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who took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into exile. He took them to Halah, Habor, Hara and the river of Gozan, where they are to this da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23~24).

본 단락 바로 앞인 18~22절은 여호와와의 도우심을 구한 요단 동편 지역의 연합군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숫적으로 열세한 그들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적군을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가치의 전리품을 획득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친 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망 중에 기뻐할 수 없고, 낙심 중에 소망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인지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도 어느새가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인데, 먼저는 요단 동편 지역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므낫세 반 지파의 주요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다 용감하고 유명했다”고 평가하며, 두 구절밖에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겨 줍니다. 그만큼 뒤이어 기록되는 그들의 악행이 더욱 구슬프기도 합니다.

2. 요단 동편 지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25~26).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흥왕하고 번성했던 시절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단락은 그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역사를 조명하며, 그 시작점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 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25절)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지만 어느새 이방 신을 향하여 서서 땅의 풍요와 생명의 장수를 헛되이 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요단 동편 지파의 범죄는 앗수르의 왕 불과 디글랏빌레셋의 손에 끌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합니다. 끌려간 앗수르의 땅에서도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 등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갈과의 전쟁(5:19~22), 그리고 앗수르에 사로잡힌 일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일어났지만 요단 동편 지파가 보인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성경은 대조되는 두 모습을 비추며 귀환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과 연합된 용감함은 승리를 안겨 주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용감함은 아둔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신 생명, 재물, 은사를 귀하게 선용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25~26절은 간절하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엄중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기를 명령하는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 ¹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²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³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 이와 같다. ⁵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⁶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2

수요일

역대상 6:1~15

오늘의 찬송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말씀 속으로

- 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The sons of Levi: Gershon, Kohath and Merari.
- 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The sons of Kohath: Amram, Izhar, Hebron and Uzziel.
- 3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The children of Amram: Aaron, Moses and Miriam, The sons
of Aaron: Nadab, Abihu, Eleazar and Ithamar.
- 4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Eleazar was the father of Phinehas, Phinehas the father of
Abishua,
- 5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 웃시를 낳고
Abishua the father of Bukki, Bukki the father of Uzzi,

6 웃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웃을 낳고

Uzzi the father of Zerahiah, Zerahiah the father of Meraioth,

7 므라웃은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뒸을 낳고

Meraioth the father of Amariah, Amariah the father of Ahitub,

8 아히뒸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Ahitub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himaaz,

9 아히마아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Ahimaaz the father of Azariah, Azariah the father of Johanan,

10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Johanan the father of Azariah (it was he who served as priest in the temple Solomon built in Jerusalem),

11 아사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뒸을 낳고

Azariah the father of Amariah, Amariah the father of Ahitub,

12 아히뒸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Ahitub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Shallum,

6:3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침범하는 죄를 범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로 계승된다.

6:8 사독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받은 사독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압살롬이 반역한 시기(삼하 15:24-29; 19:11-14).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왕상 1:23-39).

12

—
수

13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Shallum the father of Hilkiah, Hilkiah the father of Azariah,

14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Azariah the father of Seraiah, and Seraiah the father of Jehozadak.

15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Jehozadak was deported when the LORD sent Judah and Jerusalem into exile by the hand of Nebuchadnezza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레위 지파 후손이 등장합니다(1~10).

6장은 레위 지파 계보를 길게 다룹니다. 장장 81절에 달하도록 소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적 과제와 함께 나라 안에 회복되어야 할 바른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강조가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지파의 등장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 아들 중 장자인 게르손을 대신하여 둘째 아들 ‘고핫’에 초점을 둡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론이 나고, 아론의 혈통을 통하여 대제사장직이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4~10절까지는 엘르아살부터 아사랴에 이르는 아론의 직계 혈통이 나옵니다. 특히나 솔로몬 시대 완공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아사랴’는 남유다의 왕 웃시야가 재위한 시절에 제사장 직분이 함부로 침해되지 못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대하 26:16~18). 그 일을 상기시키는 듯 그와 관련하여 인용된 ‘성전’,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귀환 공동체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흘러갑니다(11~15).

아론 혈통의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그중에서도 7~8절에 지목된 아마랴, 아히둡, 사독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명이인의 후손으로 짐작됩니다. 사독이 낳은 아들 살롬은 후기 포로기에 이스라엘 학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손꼽힌다면, 그의 아들 힐기야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시절에 성전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을 도와 종교 개혁을 추진한 인물입니다(왕하 22:4~14; 23:4).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섬긴 레위 지파의 족보는 ‘여호사닥’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포로기 이후 아들 예수아가 스룹바벨을 도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력 때문에 기록되었다는 해석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백성들에게 시련은 때마다 찾아왔지만 시련 속에서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예배와 나라의 미래를 연결하는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후손이 번성하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역사는 대를 이어 흘러가며 놀라운 일들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0:10~12,17 ¹⁰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¹¹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¹²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¹⁷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3

목요일

역대상 6:16~30

오늘의 찬송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말씀 속으로

16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The sons of Levi: Gershon, Kohath and Merari.

17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립니와 시므이요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Gershon: Libni and Shimei.

18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The sons of Kohath: Amram, Izhar, Hebron and Uzziel.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The sons of Merari: Mahli and Mushi. These are the clans of the Levites listed according to their fathers:

20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립니요 그의 아들은 아합이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Of Gershon: Libni his son, Jehath his son, Zimmah his son,

21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래이며

Joah his son, Iddo his son, Zerah his son and Jeatherai his son,

22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앓실이요

The descendants of Kohath: Amminadab his son, Korah his son, Assir his son,

23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앓실이요

Elkanah his son, Ebiasaph his son, Assir his son,

24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웃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Tahath his son, Uriel his son, Uzziah his son and Shaul his son,

25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히못이라

The descendants of Elkanah: Amasai, Ahimoth,

26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핫이요

Elkanah his son, Zophai his son, Nahath his son,

6:22 암미나답

18절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까닭에 그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그핫의 다섯 번째 아들이라는 것. 둘째는 아르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 셋째는 이스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명백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13

— 목

27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Eliab his son, Jeroham his son, Elkanah his son and Samuel his son.

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The sons of Samuel: Joel the firstborn and Abijah the second son.

29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립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웃사요

The descendants of Merari: Mahli, Libni his son, Shimei his son, Uzzah his son,

30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Shimea his son, Haggiah his son and Asaiah his son.

6:28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내린 사사이다. 두 아들의 범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체제를 요구하도록 이끈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삼상 8:1-5).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레위의 주요 직계 혈통이 언급됩니다(16~21).

6장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6:1) 동일한 구절이 본 단락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며 레위의 세 아들이 다시금 소개됩니다(16절). 그리고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를 차례대로 지목한 후에 각자의 직계 혈통을 짚막하게 다루어 줍니다. 다시 말해 17~19절에 이르는 세 구절에서는 레위 지파의 1~3대손이 등장하고, 이후로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직계 자손이 본격적으로 알려집니다. 1~15절에서는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해 간 ‘그핫’ 그러니까 레위의 차남이 먼저 지목되며 그 후손이 열거되었다면, 16~21절에서는 장남인 게르손과 그의 아들 립니를 중점으로 하는 혈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의 구절을 살펴볼 때, 유독 그핫 자손에 대한 기록이 길고도 복잡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2. 말씀 없는 바른 통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22~30).

장남인 게르손과 그의 직계 혈통이 이야기되었다면, 이번에는 차남인 그हत과 아들 ‘암미나답’의 직계 혈통이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본 단락은 ‘엘가나’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며 족보가 진행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후손으로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비롯하여 두 번째 왕으로 등위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역대가 저자로서는 엘가나의 족보를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단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사사 시대에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서고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역사가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시작되고자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사 시대는 레위 지파의 악행이 두드러진 때입니다. 그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2. 대제사장을 계승한 그हत의 족보 가운데 사무엘의 등장이 주목받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우선하며 나라의 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1:19~23 ¹⁹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²⁰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 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²¹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²² 내가 거문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²³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4

역대상 6:31~48

—
금요일

오늘의 찬송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말씀 속으로

- 31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These are the men David put in charge of the music in the house of the LORD after the ark came to rest there.

- 3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They ministered with music before the tabernacle, the Tent of Meeting, until Solomon built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They performed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laid down for them.

- 33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릇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Here are the men who served, together with their sons: From the Kohathites: Heman, the musician, the son of Joel, the son of Samuel,

34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the son of Elkanah, the son of Jeroham, the son of Eliel, the
son of Toah,

35 도아는 슝의 아들이요 슝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
합의 아들이요 마합은 아마새의 아들이요

the son of Zuph, the son of Elkanah, the son of Mahath, the
son of Amasai,

36 아마새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
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the son of Elkanah, the son of Joel, the son of Azariah, the son
of Zephaniah,

37 스바냐는 다합의 아들이요 다합은 앓실의 아들이요 앓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the son of Tahath, the son of Assir, the son of Ebiasaph, the
son of Korah,

38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합의 아들이요 그합
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the son of Izhar, the son of Kohath, the son of Levi, the son
of Israel;

39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and Heman's associate Asaph, who served at his right hand: Asaph son of Berekiah, the son of Shimea,

40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the son of Michael, the son of Baaseiah, the son of Malkijah,

41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the son of Ethni, the son of Zerah, the son of Adaiah,

42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the son of Ethan, the son of Zimmah, the son of Shimei,

43 시므이는 야합의 아들이요 야합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the son of Jahath, the son of Gershon, the son of Levi;

44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
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and from their associates, the Merarites, at his left hand: Ethan
son of Kishi, the son of Abdi, the son of Malluch,

45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the son of Hashabiah, the son of Amaziah, the son of Hilkiah,

46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the son of Amzi, the son of Bani, the son of Shemer,

47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
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the son of Mahli, the son of Mushi, the son of Merari, the son
of Levi.

48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
았더라

Their fellow Levites were assigned to all the other duties of the
tabernacle, the house of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찬송으로 예배를 섬긴 레위 후손이 있습니다(31~38).

남쪽의 유다 지파, 요단 동쪽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다음으로는 서쪽으로 시선이 이동하여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길게 서술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아론의 직계 혈통이 다루어졌다면, 이곳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회막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섬긴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일은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의 후손 가운데 각각 한 명씩, 총 세 명의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일어나는데 게르손의 후손 아삽, 고핫의 후손 헤만, 므라리의 후손 에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차남인 고핫의 후손 헤만을 머리 삼아 이어지며, 조상에서 후손으로 내려가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후손에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38절은 “그हत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마침표를 찍으며 작게는 헤만 집안을, 넓게는 레위 지파의 정통성을 입증합니다.

2.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선택되었습니다(39~48).

39절에는 게르손의 후손 ‘아삽’이 등장하며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때에 성경은 아삽을 가리켜 ‘게르손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헤만의 형제’라고 소개하며 차남인 그हत이 장남인 게르손보다 우선되는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함께 헤만의 경우에는 그의 조상 그हत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흐름이 돋보인 데 반해(6:38), 아삽과 에단의 족보는 레위를 최종적인 조상으로 언급하며 일단락되기도 합니다. 한편, 레위 지파 중에는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이들 외에도 다양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48절). 그들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49절부터 재개될 예정인데 이렇듯 하나님의 집을 정성껏 섬긴 레위 지파에 대한 긴 소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유다 백성의 마음을 모읍니다. 나아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기초 삼아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안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의 목적 아래 레위 지파는 다양한 일을 도맡습니다. 같은 길을 다양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격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선택받은 레위 지파는 신약 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의 지성소를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6:8~12,20 ⁸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⁹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피 주신다. ¹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¹¹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¹²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²⁰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5

욥기 7:1~21

토요일

오늘의 찬송 272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말씀 속으로

- 1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Does not man have hard service on earth? Are not his days like those of a hired man?”

- 2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삯을 기다리나니

Like a slave longing for the evening shadows, or a hired man waiting eagerly for his wages,

- 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so I have been allotted months of futility, and nights of misery have been assigned to me.

-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When I lie down I think, ‘How long before I get up?’ The night drags on, and I toss till dawn.

- 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My body is clothed with worms and scabs, my skin is broken and festering.

6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My days are swifter than a weaver's shuttle, and they come to an end without hope.

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Remember, O God, that my life is but a breath; my eyes will never see happiness again.

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The eye that now sees me will see me no longer; you will look for me, but I will be no more.

9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 오지 못할 것이오니

As a cloud vanishes and is gone, so he who goes down to the grave does not return.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He will never come to his house again; his place will know him no more.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Therefore I will not keep silent; I will speak out in the anguish of my spirit, I will complain in the bitterness of my soul.

15

— 토

- 12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Am I the sea, or the monster of the deep, that you put me under guard?

- 13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When I think my bed will comfort me and my couch will ease my complaint,

- 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이다

even then you frighten me with dreams and terrify me with visions,

- 15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so that I prefer strangling and death, rather than this body of mine,

- 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I despise my life; I would not live forever. Let me alone; my days have no meaning.

-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What is man that you make so much of him, that you give him so much attention,

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Will you never look away from me, or let me alone even for an instant?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If I have sinned, what have I done to you, O watcher of men? Why have you made me your target? Have I become a burden to you?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Why do you not pardon my offenses and forgive my sins? For I will soon lie down in the dust; you will search for me, but I will be no mor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욥이 무너집니다(1~10).

엘리바스의 발언에 응수한 욥의 대답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 달’, 그러니까 잠 자리에 들려고 하면 언제 아침이 될까 싶고, 아침이 시작되면 언제 저녁이 될지 한탄할 만큼 고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3절). 여기에는 좀처럼 그치지 않을 시련을 예상한 욥의 시선이 함께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엎키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들어선 셈입니다. 그러자 스스로 살 소망을 포기해 버린 그가 하나님을 가득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8절) 삶과 죽음의 한계 안에서 여호와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던 욥이 이제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자리에 올라서고자 합니다. 그만큼 힘겹고도 지난했을 고통 속에서 너털해진 심정이 이해되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은 그의 믿음에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모호한 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은 길이 안내합니다(11~21).

달리 설명할 길도,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시험의 굴레 속에서 욥의 한탄이 절정에 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17절) 혹여나 열 자녀들이 하나님을 상심하게 하였을까 노심초사하며 번제를 드리던 그가 지금은 자신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 마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잠잠히 한탄을 들여다보면 삶이 긍정되기를 원하는 욥의 본심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19절). 그러나 헛되고도 헛되다는 탄식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욥을 창조하고, 보내시고, 부르신 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역설적으로 극대화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지만 하나님께도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대범한 발언을 이어 가는 중에도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친구들이 듣기에 욥의 탄식은 믿음 없음의 실체이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허용하시며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탄식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탄식이 가지는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2.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말과 행위를 살피는 동시에 오래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비춥니다.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상심하거나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울려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10~14 ¹⁰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¹¹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¹²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알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¹³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끈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¹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그리고 밭모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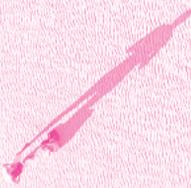
글 김양자 (은퇴 권사)

눈이 부시게 푸르던
겨울 에게해

마침내
갈릴리 호수
꿈에 그리던 그곳에 갔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부르시고 거니시던 곳

설레던 순례의 여정
환호하던 젊은 우리 가슴이 담기엔
너무 광대하던 그 바다

한 분 말씀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은
아득한 신비의 역사
가없는 우주 공간의 깊이보다
더 엄청난 신비에 가슴 떨렸을 뿐...



베드로의 해변에서
목줄기 아프도록 흘린
회개의 눈물

그리고 밧모섬

가장 깊은 박해의 심연으로 찾아오신 주님

날마다 말씀해 주신 주님

감격에 겨워 울며

주님 향해 몸 일으키던

요한 사도의 손바닥 자국

기도의 무릎 자국

바위가 패이도록

집중했던 주님과 사도의 시간

계시의 말씀들

그 진실이면 족할 것을

안목의 호사 위해 더덕더덕 꾸며서 화사해진

인간의 마을

고난의 유배지에서

아프게 본질을 찢러오던 질문들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

말씀에도 인생에도 뜨겁고 진지했지만

때로는 대책 없이 서툴렀던 나의 그 한 시절

여행에는 진심이었던 기억이

행복한 미소로 찾아오네

1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7/16~22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 73:24)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

욥기 8:1~10

월요일

오늘의 찬송 216 성자의 귀한 몸

 말씀 속으로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Bildad the Shuhite replied: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How long will you say such things? Your words are a blustering wind.

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Does God pervert justice? Does the Almighty pervert what is right?

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When your children sinned against him, he gave them over to the penalty of their sin.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But if you will look to God and plead with the Almighty,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if you are pure and upright, even now he will rouse himself on your behalf and restore you to your rightful place.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Ask the former generations and find out what their fathers learned,

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for we were born only yesterday and know nothing, and our days on earth are but a shadow.

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Will they not instruct you and tell you? Will they not bring forth words from their understand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빌닷의 충고가 시작됩니다(1~7).

4-5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담았다면, 이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입을 열어 욥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 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견잡을 수 없구나.”(2절) 시작부터 단호한 그의 반응은 하나님도 잠잠히 기다리시는 욥의 언어를 무너트리며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욥이 아무리 질실하게 토로해 봤자 그가 범한 죄는 이미 들통났다는 셈입니다. 욥을 향한 냉정한 빌닷의 판결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자녀의 죽음을 해석하는 데에도 미칩니다.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4절)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아무쪼록 자식을 잃고 삶을 부정당하는 듯한 친구 욥에게 전하는 말이라곤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가 정말 욥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였는지 그 본심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5-7절).

2. 빌닷은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8~10).

울며 탄식하는 친구에게 자신 있게 충고를 건넨 엘리바스는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의지하였다면, 빌닷의 조언은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근거를 둡니다. 이렇듯 두 사람 모두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면모는 보이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은 개인의 경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다른 이는 극도로 이성화되어 현실을 객관화시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욥의 탄식과 울부짓음 안에 깔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빌닷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를 물질의 축복으로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 욥은 죄인이나 그가 돌이키면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충고는 어쩐지 복을 위한 회개, 복을 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은 욥의 말을 들은 세 친구의 반응을 암시합니다.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욥이서가 가르쳐 주는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2. 빌닷의 격언은 지식에 갇힌 우매한 자의 실상을 보여 줍니다. 현자의 가르침은 알았지만 지혜롭게 적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옳음을 증명하는 일에 우선하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7:23~31 ²³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²⁴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²⁵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²⁶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²⁷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 없이 된다. ²⁸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²⁹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³⁰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³¹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배부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8

역대상 6:49~60

화요일

오늘의 찬송 456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말씀 속으로

49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But Aaron and his descendants were the ones who presented offerings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and on the altar of incense in connection with all that was done in the Most Holy Place, making atonement for Israel, in accordance with all that Moses the servant of God had commanded.

50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Aaron: Eleazar his son, Phinehas his son, Abishua his son,

51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웃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Bukki his son, Uzzi his son, Zerahiah his son,

52 그의 아들은 므라웃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뒸이요

Meraioth his son, Amariah his son, Ahitub his son,

53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Zadok his son and Ahimaaz his son,

54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These were the locations of their settlements allotted as their territory (they were assigned to the descendants of Aaron who were from the Kohathite clan, because the first lot was for them):

55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They were given Hebron in Judah with its surrounding pasturelands.

56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But the fields and villages around the city were given to Caleb son of Jephunneh,

57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립나와 그 초원과 야달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So the descendants of Aaron were given Hebron (a city of refuge), and Libnah, Jattir, Eshtemoa,

58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Hilen, Debir,

59 아산과 그 초원과 벵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Ashan, Juttah and Beth Shemesh,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60 또 베나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돛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다

And from the tribe of Benjamin they were given Gibeon, Geba, Alemeth and Anathoth,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These towns, which were distributed among the Kohathite clans, were thirteen in al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제사장의 제일 된 사역은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49~53).

솔로몬 시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섬긴 레위의 후손이 언급되었습니다(6:31~47). 게르손의 자손 아삽, 그핫의 자손 헤만, 므라리의 자손 예단을 중심으로 전개된 족보는 회막의 보다 깊은 곳에서 예배를 책임진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은 필히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는 아론의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섬긴 후손들이 나열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49절) 특별하게 선출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리하여 땅을 속죄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증보하였습니다. 그들이 맡은 화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땅을 증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2. 레위 지파의 거주지가 설명됩니다(54~60).

앞선 단락은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아론의 혈통을 이야기하며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속죄하는 주된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런 만큼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섬긴 자들은 성전에 가까이 터를 잡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듯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에 걸쳐서 살도록 명령받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터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기서는 레위 지파가 거주한 땅의 일부들을 언급하는데, 대제사장직을 감당한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접근이 용이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에 배치됩니다. 그 내용이 아론의 계보를 잇게 된 그핫 종족을 중심으로 소개되며 성경은 다시 한번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는 비전을 제시하여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구약 시대 특정 지파만이 가능했던 대제사장직이 믿는 모든 성도에게로 확장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역사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2.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삶을 일찍이 훈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서게 된 나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8:1~6 ¹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²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³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의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 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⁵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⁶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9

역대상 6:61~81

수요일

오늘의 찬송 463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 61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The rest of Kohath's descendants were allotted ten towns from the clans of half the tribe of Manasseh.

- 62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The descendants of Gershon, clan by clan, were allotted thirteen towns from the tribes of Issachar, Asher and Naphtali, and from the part of the tribe of Manasseh that is in Bashan.

- 63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The descendants of Merari, clan by clan, were allotted twelve towns from the tribes of Reuben, Gad and Zebulun.

- 64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So the Israelites gave the Levites these towns and their pasturelands.

65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From the tribes of Judah, Simeon and Benjamin they allotted the previously named towns.

66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Some of the Kohathite clans were given as their territory towns from the tribe of Ephraim.

67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hey were given Shechem (a city of refuge), and Gezer,

68 욱므암과 그 초원과 베히론과 그 초원과

Jokmeam, Beth Horon,

69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Aijalon and Gath Rimmon,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70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And from half the tribe of Manasseh the Israelites gave Aner and Bileam,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to the rest of the Kohathite clans.

71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The Gershonites received the following: From the clan of the half-tribe of Manasseh they received Golan in Bashan and also Ashtaroth,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72 또 잇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from the tribe of Issachar they received Kedesh, Daberath,

73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Ramoth and Anem,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74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from the tribe of Asher they received Mashal, Abdon,

75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Hukok and Rehob,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76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and from the tribe of Naphtali they received Kedesh in Galilee, Hammon and Kiriathaim,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77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The Merarites (the rest of the Levites) received the following: From the tribe of Zebulun they received Jokneam, Kartah, Rimmono and Tabor,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78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from the tribe of Reuben across the Jordan east of Jericho they received Bezer in the desert, Jahzah,

79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Kedemoth and Mephaath,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80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and from the tribe of Gad they received Ramoth in Gilead, Mahanaim,

81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Heshbon and Jazer,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레위 지파 거주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됩니다(61~70).

54~60절은 그핫 종족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에 주목하며 이들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후손들이 우선적인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한편 으론 직분이 중요한 만큼 예루살렘 근접한 땅에 배치되었다는 기록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가르치고자 한 상징적인 의도를 엿보게 합니다. 이어지는 본 단락은 그핫 자손 가운데서 ‘남은 자’, 즉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또 다른 후손들의 거주지를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에 살았다면, 그 밖의 남은 자는 서쪽에 위치한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주하였습니다(61,66,70절). 레위의 세 아들 중 그핫을 제외한 게르손과 므라리의 후손이 분배받은 땅은 71~81절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2. 하나님 안에서 평화는 창조됩니다(71~81).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배치된 성읍 일부가 세세하게 나열됩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81절에 달하는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특히나 6장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레위 지파를 향한 저자의 관심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좁게는 레위 아들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이어 간 그핫 종족에 강조를 둔 흐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레위 지파에게 땅의 일부를 내어 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은 궁극적으로는 자손과 자손, 지파와 지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64절). 즉 과거에 흥왕한 다윗 왕조의 재건을 제시하며 귀환한 유다 백성을 독려하는 저자의 일차적인 관심을 부인할 순 없지만, 심층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가 꿈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합은 맹목적인 하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두며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과 나라의 회복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레위인에게 땅의 일부를 주며 살 터전을 마련해 준 다른 지파의 소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2. 소유의 일부를 형제에게 나누며 지파 간의 연합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는 평화를 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사모하며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6:1,21~23 ¹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²¹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²²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²³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The sons of Issachar: Tola, Puah, Jashub and Shimron - four in all.

- 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이만 이천육백 명이 었더라

The sons of Tola: Uzzi, Rephaiah, Jeriel, Jahmai, Ibsam and Samuel - heads of their families. During the reign of David, the descendants of Tola listed as fighting men in their genealogy numbered 22,600.

- 3 웃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잇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The son of Uzzi: Izrahiah. The sons of Izrahiah: Michael, Obadiah, Joel and Isshiah. All five of them were chiefs.

-
- 4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According to their family genealogy, they had 36,000 men ready for battle, for they had many wives and children.

- 5 그의 형제 잇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The relatives who were fighting men belonging to all the clans of Issachar, as listed in their genealogy, were 87,000 in all.

- 6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Three sons of Benjamin: Bela, Beker and Jediael.

- 7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며

The sons of Bela: Ezbon, Uzzi, Uzziel, Jerimoth and Iri, heads of families - five in all. Their genealogical record listed 22,034 fighting men.

- 8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내와 오희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The sons of Beker: Zemirah, Joash, Eliezer, Elioenai, Omri, Jeremoth, Abijah, Anathoth and Alemeth. All these were the sons of Beker.

- 9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이만 이백 명이며

Their genealogical record listed the heads of families and 20,200 fighting men.

- 10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The son of Jediael: Bilhan, The sons of Bilhan: Jeush, Benjamin, Ehud, Kenaanah, Zethan, Tarshish and Ahishahar.

- 11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이백 명이며

All these sons of Jediael were heads of families. There were 17,200 fighting men ready to go out to war.

- 12 일의 아들은 슈빔과 홉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The Shuppites and Huppites were the descendants of Ir, and the Hushites the descendants of Aher.

- 13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The sons of Naphtali: Jahziel, Guni, Jezer and Shillem - the descendants of Bilhah.

7:12 후심

창세기 46장 23절에 따르면 후심은 단의 유일한 아들로 소개된다. 그러나 역대상 7장에서는 베냐민 자손 안에 그가 거론되고, 단 지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이상송배를 범한 단 지파를 경고한 의도로 해석하는가 하면, 저자가 족보를 작성할 당시 단 지파에 대한 적절한 참고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북이스라엘에 편입된 지파의 소개가 시작됩니다(1~5).

성경의 시선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7장 곳곳에 언급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될 시기에 북 왕조로 편입된 지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단편적이거나 이들에 관한 족보를 삽입하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먼저는 ‘잇사갈’ 지파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의 장남인 돌라, 돌라의 장남인 웃시의 계보가 집중적으로 기술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에 기록된 족보는 ‘다윗 때’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상기시키며(2절), 잇사갈 지파의 주요 우두머리와 함께 군대에 출전할 만한 용병의 숫자를 보여 줍니다. 즉 포로 후기에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 다윗 시대 번영했던 잇사갈 지파의 역사는 되돌아오지 못할 과거처럼 다가오지만, 미완의 과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 시작될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자손이 나열됩니다(6~13).

잇사갈 다음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데 크게는 세 가문으로 나뉘어 소개됩니다. 벨라, 베겔, 여디아엘이 직계 혈통으로 꼽히는데 이들에 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보입니다(6절).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 예를 들어 창세기 46장, 민수기 26장, 역대상 8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단락에 인용된 월등히 많은 용사의 수는 해석의 어려움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저자가 본 족보를 작성할 당시에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거나 혹은 작성할 당시의 시대를 기준 삼아 나름의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합니다. 베냐민에 이어 ‘납달리’ 지파에 관한 소개는 단 한 줄로 매우 압축적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3절). 아람 왕과 앗수르 왕의 침략 아래 고난을 받은 납달리 지파 땅에서 놀랍게도 이사야는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사 9:1),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이 분배받은 땅을 기점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예수님은 이방의 침략을 받은 땅에서 치유와 해방을 일으키시며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묵상과 함께 여전히 억압받는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빛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1:1~8 ¹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²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에서 온다. ³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⁵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⁶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⁷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⁸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1

—
금요일

역대상 7:14~29

오늘의 찬송 42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말씀 속으로

- 14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 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 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The descendants of Manasseh: Asriel was his descendant through his Aramean concubine. She gave birth to Makir the father of Gilead.

- 15 마길은 홉빔과 슝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Makir took a wife from among the Huppites and Shuppites. His sister's name was Maacah. Another descendant was named Zelophehad, who had only daughters.

- 16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겔이요

Makir's wife Maacah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Peresh. His brother was named Sheresh, and his sons were Ulam and Rakem.

17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The son of Ulam: Bedan, These were the sons of Gilead son of Makir, the son of Manasseh.

18 그의 누이 함몰레켓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His sister Hammoleketh gave birth to Ishhod, Abiezer and Mahlah,

19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겔과 릭히와 아니암이더라

The sons of Shemida were: Ahian, Shechem, Likhi and Aniam,

20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텔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합이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합이요

The descendants of Ephraim: Shuthelah, Bered his son, Tahath his son, Eleadah his son, Tahath his son,

21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텔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Zabad his son and Shuthelah his son, Ezer and Elead were killed by the native-born men of Gath, when they went down to seize their livestock.

- 22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

Their father Ephraim mourned for them many days, and his relatives came to comfort him,

- 23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Then he lay with his wife again,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son. He named him Beriah, because there had been misfortune in his family.

- 24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 성 벰호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다

His daughter was Sheerah, who built Lower and Upper Beth Horon as well as Uzzen Sheerah.

- 25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텔라이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Rephah was his son, Resheph his son, Telah his son, Tahan his son,

- 26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Ladan his son, Ammihud his son, Elishama his son,

27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Nun his son and Joshua his son,

28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벤허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켄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Their lands and settlements included Bethel and its surrounding villages, Naaran to the east, Gezer and its villages to the west, and Shechem and its villages all the way to Ayyah and its villages.

29 또 므낫세 자손의 지계에 가까운 벵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므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Along the borders of Manasseh were Beth Shan, Taanach, Megiddo and Dor, together with their villages. The descendants of Joseph son of Israel lived in these towns.

7:24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기보다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은 후손으로 짐작된다. 24절에 나오는 '아래 윗 성 벵호론과 우센세에라의 건설이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족보가 기록됩니다(14~19).

14~29절에 나오는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려 주는 계보인데, 흥미롭게도 본 족보는 우두머리와 용병에 집중한 1~13절 족보와 달리 가정사와 관련된 성격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15절은 므낫세의 둘째 아들로서 ‘슬로브핫’을 소개하나 본래 그는 므낫세의 아들인 헤벨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본절은 그를 므낫세의 직계 혈통으로 전하며 슬로브핫 집안의 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상기시키는 의도를 가집니다. 여호수아 기록에 따르면 슬로브핫의 자녀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집안의 분깃을 요구했고, 분깃을 받는 대가로 므낫세 집안과의 결혼만이 허용됩니다(수 17:4~6). 이와 함께 마길의 ‘아내’, 길랴트의 ‘누이’ 함몰레렛의 등장은 이곳에 기록된 족보의 특별한 성격을 상징적으로 전해 줍니다.

2. 므낫세의 형제 에브라임 족보가 이어집니다(20~29).

므낫세의 형제 ‘에브라임’ 족보가 시작됩니다. 므낫세 자손이 가정사와 연계하여 족보가 전개되었다면 에브라임 자손과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성읍에 내려갔으나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21절). ‘가드’를 둘러싸고 블레셋에 속한 성읍인지 혹은 그 밖의 다른 성읍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깃다임’을 뜻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이해합니다. 에브라임에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마무리되는 본 족보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언급하며 에브라임 지파의 정통성에 무게를 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편입된 주요 지파이지만,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성경은 두 지파가 거주한 성읍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거하였다고 말합니다(2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역대기 저자는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연합하고 있습니까?
2. 더 가지려고 하다가 가드 주민에게 화를 당한 사건을 기록한 21절과,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얻은 여호수아의 등장을 비교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8~13 ⁸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⁹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¹⁰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¹¹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¹²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¹³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2

욥기 8:11~22

—
토요일

오늘의 찬송 299 하나님 사랑은

말씀 속으로

- 11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Can papyrus grow tall where there is no marsh? Can reeds thrive without water?”

- 12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While still growing and uncut, they wither more quickly than grass.

- 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Such is the destiny of all who forget God; so perishes the hope of the godless.

- 14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What he trusts in is fragile; what he relies on is a spider's web.

-
- 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He leans on his web, but it gives way; he clings to it, but it does not hold.

- 16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He is like a well-watered plant in the sunshine, spreading its shoots over the garden;

- 17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it entwines its roots around a pile of rocks and looks for a place among the stones.

- 18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But when it is torn from its spot, that place disowns it and says,
'I never saw you.'

- 19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Surely its life withers away, and from the soil other plants grow.

8:11 왕골
파피루스의 일종

22

—
토

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
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Surely God does not reject a blameless man or strengthen the
hands of evildoers.

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He will yet fill your mouth with laughter and your lips with
shouts of joy.

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Your enemies will be clothed in shame, and the tents of the
wicked will be no mor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11~15).

땅에서 잘되어 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빌닷의 사고는 은밀하게도 힘과 재물을 숭상하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 전연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인생의 물음을 던지며 전개되는 욱기서를 찬찬히 음미해 볼 때에 엘리바스나 빌닷 모두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인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단편적인 앎이 타인을 향하여서는 성급한 확신이 된다는 점에서 옳음을 인정받고 주체자로 서려는 인간 본연의 본성이 들추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욱의 호소 역시 자신의 삶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심정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절망, 분노와 상심 중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거칠게 외치는 빌닷의 발언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13절).

2. 의로운 믿음은 은혜의 깊은 세계로 인도해 갑니다(16~22).

재물과 힘의 논리를 앞세우다 보면 쉽사리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구원이 가지는 치유와 해방, 회복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귀속시키는 하나님을 고집하는 경우, 그의 의로우심에 관한 신앙적인 진술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자라 하는 이들도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은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욱기서에 묘사되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며,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축적되는 물질로 은혜를 측량하며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하는 자에게 벌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한 것이 빌닷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분께서 네 입을 웃음으로 채워 주시면, 네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21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향하여 있기 마련인데, 겸손과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 의로운 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 엘리바스는 가난한 자를 주목하며 악한 자의 편에서 서시는 하나님을, 빌닷은 부유한 자에 주목하며 복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단편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욱의 고난을 보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봅시다.
-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의로운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과 순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4~8 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⁵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⁶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⁷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⁸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모순이 가득한 인생

글 이순기(부목사)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삶의 자리에서 전도서를 목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집 살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영성훈련에 참여할 때입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학교 주변을 청소하고, 4인 1실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묵상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2박 3일간 기도원에서 침묵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성훈련을 위해 한 학기 동안 기숙사와 집, 두 곳에서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토요일과 주일은 집에서 지내며 기숙사와 집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한 학기 내내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집에 가면 토요일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어 좋았습니다. 통금 시간 없이 가족들과 늦게까지 지내며 야식도 먹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영성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족, 특히 아이와 나름대로 시간을 힘 있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주일 저녁이 되면 약간 지칩니다. 이때 주일 저녁 늦게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 스케줄이 반가워집니다. 가족들과 다시 이별해야 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장단점 가운데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니 뒤섞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허리띠를 집에 다 두고 왔는데 기숙사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허리띠 없이 바지를 입고 다닌다든지, 양

말이 기숙사에 없어서 보았다니 집에서 빨래를 했는데 안 갖고 왔다든지, 생활용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두 집 살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금방 들켰겠다 싶었고,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신경써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는 두 집 살림도 아니고 도대체 몇 집 살림이던가요? 농담으로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둑질을 제외하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험의 깊이가 다르면 열매를 맺는 것도, 성숙함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 인생의 최고 정점에 서 있어 본 그는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 1:3)

경험은 상대적인 것이라 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누구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근심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와, 그런 골치라도 아파보면 좋겠다는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요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에는 분명 헛되고 헛된 모습이 존재하고, 인생의 무상함과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 이어 나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 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라고 말해 줍니다.

삶의 연수를 더하여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내는 지혜로움을 붙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단지 허무함으로만 가둘 것이 아니라, 고민은 하되 인생의 헛헛함과 무상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3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7/23~29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하다. (시 136:16)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Indeed, I know that this is true. But how can a mortal be righteous before God?”

3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Though one wished to dispute with him, he could not answer him one time out of a thousand.

4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

His wisdom is profound, his power is vast. Who has resisted him and come out unscathed?

-
- 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He moves mountains without their knowing it and overturns them in his anger.

- 6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He shakes the earth from its place and makes its pillars tremble.

- 7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He speaks to the sun and it does not shine; he seals off the light of the stars.

- 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He alone stretches out the heavens and treads on the waves of the sea.

-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He is the Maker of the Bear and Orion, the Pleiades and the constellations of the south.

-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He performs wonders that cannot be fathomed, miracles that cannot be counted.

-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When he passes me, I cannot see him; when he goes by, I cannot perceive him.

- 1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라

If he snatches away, who can stop him? Who can say to him, "What are you doing?"

- 13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God does not restrain his anger; even the cohorts of Rahab cowered at his feet.

- 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How then can I dispute with him? How can I find words to argue with him?

- 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Though I were innocent, I could not answer him; I could only plead with my Judge for mercy.

16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
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Even if I summoned him and he responded, I do not believe
he would give me a hearing.

17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He would crush me with a storm and multiply my wounds for
no reason.

18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He would not let me regain my breath but would overwhelm
me with misery.

19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
환하겠느냐

If it is a matter of strength, he is mighty! And if it is a matter of
justice, who will summon him?

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Even if I were innocent, my mouth would condemn me; if I
were blameless, it would pronounce me guilty.

9:13 라합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용'을 가리킨
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치
신다는 기록은 혼란의
세력을 꺾고, 바른 질서
를 세우시는 통치 능력
을 의미한다.

9:19 그를

히브리어) 나를

- 21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Although I am blameless, I have no concern for myself; I despise my own life.

- 22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It is all the same; that is why I say, 'He destroys both the blameless and the wicked.'

- 23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When a scourge brings sudden death, he mocks the despair of the innocent.

- 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When a land falls into the hands of the wicked, he blindfolds its judges. If it is not he, then who is i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삶에 대한 허무가 욕을 덮습니다(1~16).

날카롭게 들이치는 빌닷의 발언을 들은 욕이 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2절)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 그쯤이야 욕도 안다고 반문합니다. 사실 욕을 비롯한 세 친구 모두 존재론적으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을 인정하며 고백해 옵니다. 다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는 이토록 고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욕 스스로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그는 어둠과 혼돈의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리위야단을 소환합니다. 리위야단조차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힘 한 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굴복하니 하물며 욕이라고 방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절망은 이내 무익한 생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지며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2. 욕은 믿음과 삶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17~24).

욕의 불행은 근원적으로 심리적인 차원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자나 악한 자, 아니 악한 자보다도 의로운 자를 매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라면 구태여 인생을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상실감을 보입니다. 그간 우정을 나눈 친구들은 고사하고 평생에 믿고 바라온 하나님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과 자기파멸적인 고백뿐입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21절) 이제는 욕마저도 자신을 부정하고 삶을 포기하려 드니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하나님, 친구, 그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긍정되고 수납받기를 원한다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보시다.

1. 악인보다 난처해진 처지를 바라보면서 삶의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욕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해 보시다.
2. 욕이 결백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탄원합니다. 억울하거나 상심할 때에 나는 주로 어떻게 감정을 해소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18~21 ¹⁸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¹⁹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²⁰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 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²¹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야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5

역대상 7:30~40

화요일

오늘의 찬송 465 주 믿는 나 남 위해

 말씀 속으로

30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야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The sons of Asher: Imnah, Ishvah, Ishvi and Beriah. Their sister was Serah.

31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The sons of Beriah: Heber and Malkiel, who was the father of Birzaith.

32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Heber was the father of Japhlet, Shomer and Hotham and of their sister Shua.

33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The sons of Japhlet: Pasach, Bimhal and Ashvath. These were Japhlet's sons.

34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The sons of Shomer: Ahi, Rohgah, Hubbah and Aram.

35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셸레스와 아말
이요

The sons of his brother Helem: Zophah, Imna, Shelesh and Amal,

36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
라와

The sons of Zophah: Suah, Harnepher, Shual, Beri, Imrah,

37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Bezer, Hod, Shamma, Shilshah, Ithran and Beera,

38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The sons of Jether: Jephunneh, Pispah and Ara,

39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The sons of Ulla: Arah, Hanniel and Rizia,

40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
하면 이만 육천 명이었더라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Asher - heads of families, choice men, brave warriors and outstanding leaders. The number of men ready for battle, as listed in their genealogy, was 26,000.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북 왕국에 편입된 지파의 소개가 마무리됩니다(30~37).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편입된 다섯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가 아셀 지파 소개를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성경은 각 지파와 관련하여 나름의 특징적인 서술 방식을 보여 왔습니다. 잇사갈 자손의 경우에는 지파의 유명한 우두머리를 소개하며 전쟁에 출전할 용병의 숫자가 기입되었다면(7:1-5),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된 납달리 자손의 족보는 신약 시대를 거쳐 그 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게 하였습니다(7:13).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에 관하여서는 각각 주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술되며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7:14-29).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아셀 자손 족보는 그의 아들 ‘브리아’에 초점을 두며 전개되는데, 저자는 브리아의 아들 중에서도 ‘헤벨’ 가문에 관심을 둡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아셀 지파가 차지한 거주지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그에 비해 지파의 명성은 소수의 가문을 통하여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38~40).

역대기 저자는 아셀 지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조상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사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이만 육천 명이다.”(40절) 잇사갈이나 베나민 후손과 비교했을 때 전쟁터에 용감히 출전할 만한 아셀 자손의 용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자는 칭찬할 만한 정보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게 됩니다. 이 희망의 선포가 역사의 과제 앞에 선 귀환한 백성들을 움직이며 주의 아들 여호수아가 믿음을 따라 당당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듯이, 그들 또한 담대히 용기를 가지도록 이끌었음지도 모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긴 족보 안에는 역사에 대한 평가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후손의 미래를 밝히는 나의 걸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2.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에는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마음이 하나되고, 서로가 협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0:3~5 ³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⁵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6

역대상 8:1~28

수요일

오늘의 찬송 421 내가 예수 믿고서

말씀 속으로

- 1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Benjamin was the father of Bela his firstborn, Ashbel the second son, Aharah the third,

- 2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Nohah the fourth and Rapha the fifth,

- 3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앓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The sons of Bela were: Addar, Gera, Abihud,

- 4 아비수아와 나이만과 아호아와

Abishua, Naaman, Ahoah,

- 5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Gera, Shephuphan and Huram.

6 에훗의 아들들은 이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합으로 갔으니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Ehud, who were heads of families of those living in Geba and were deported to Manahath:

7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Naaman, Ahijah, and Gera, who deported them and who was the father of Uzza and Ahihud.

8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Sons were born to Shaharaim in Moab after he had divorced his wives Hushim and Baara,

9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By his wife Hodesh he had Jobab, Zibia, Mesha, Malcam,

10 여우스와 사카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Jeuz, Sakia and Mirmah. These were his sons, heads of families.

11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By Hushim he had Abitub and Elpaal.

8:1

창세기 46:21 민수기 26:38 역대상 7장에 나오는 베냐민 족보와 비교할 때 만아들 벨라를 제외하고는 각 성경 구절이 일치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각 구절이 기록될 당시에 참고한 자료가 다양했다는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사람은 같으나 다르게 표기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8:2 노하, 라바

두 인물을 '스부밤', '후밤'과 동일시 여기는 입장도 있다(민 26:39).

8:6 에훗

사사 시대 모압 왕 예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에훗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베냐민 출신이다(삿 3:15).

- 12 엘비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The sons of Elpaal: Eber, Misham, Shemed (who built Ono and Lod with its surrounding villages),

- 13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and Beriah and Shema, who were heads of families of those living in Aijalon and who drove out the inhabitants of Gath,

- 14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Ahio, Shashak, Jeremoth,

- 15 스바다와 아랏과 에텔과

Zebadiah, Arad, Eder,

- 16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Michael, Ishpah and Joha were the sons of Beriah,

- 17 스바다와 므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Zebadiah, Meshullam, Hizki, Heber,

18 이스므래와 이슬리아와 요밧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Ishmerai, Izliah and Jobab were the sons of Elpaal.

19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Jakim, Zicri, Zabdi,

20 엘리에내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Elienai, Zillethai, Eiel,

21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Adaiah, Beraiah and Shimrath were the sons of Shimei,

22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Ishpan, Eber, Eiel,

23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Abdon, Zicri, Hanan,

24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Hananiah, Elam, Anthothijah,

8:12 오노와 롯

읍바 근처의 해안 평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8:21 시므이

21절의 '시므이'가 13절의 '세마'와 동일 인물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26

—
수

25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Iphdeiah and Penuel were the sons of Shashak.

26 샴스래와 스하라와 이달라와

Shamsherai, Shehariah, Athaliah,

27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Jaareshiah, Elijah and Zicri were the sons of Jeroham.

28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All these were heads of families, chiefs as listed in their
genealogy, and they lived in Jerusal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베냐민 지파의 소개가 재개됩니다(1~10).

7장은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북이스라엘로 편입된 지파의 족보를 다루었습니다. 8장에는 7장 6-12절에 걸쳐 삽입된 베냐민 자손의 계보가 다시금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학자들은 포로기 후대 공동체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시기에 남유다를 지지한 공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1-5절까지는 베냐민의 장자 벨라 계열의 족장이, 6-7절까지는 에훗 계열의 족장이, 8-28절까지는 사하라임 계열의 주요 족장이 나열됩니다.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거주지는 베냐민 지파가 가진 역사의 흔적을 함축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6절의 '마나핫'은 유다 지파와의 연결성을 보여 줍니다. 한편 '사하라임'이 두 아내를 내보내고 모압 땅에 들어가 낳은 자식이 전해집니다(8-10절). 이때에 모압 여인으로 추정되는 '호데스'에게서 난 후손의 소개는 두 구절로 일단락되지만(9-10절), '후심'에게서 난 아들의 소개는 28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혈통을 강조한 저자의 의도를 엿보게 됩니다.

2. 형제간의 연합은 소중합니다(11~28).

사하라임과 모압 여인 호데스 사이에서 난 자식이 소개되었다면, '후심'의 후손이 전해집니다. 그들에 관하여 마을을 세우고,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활약한 이력이 밝혀집니다. 특히나 거주지 '아얄론'과 '가드'에 대한 언급은 베냐민 지파의 왕성했던 힘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블레셋과의 경계를 둔 아얄론 지역에서 브리아와 세마가 우두머리로 활동했다는 사실, 나아가 블레셋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주민을 내쫓고 승리를 거둔 기록은 베냐민 지파가 가진 능력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13절). 이렇듯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며 활약을 거둔 베냐민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유다 지파와 연합합니다(28절).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며 베냐민 지파로부터 난 사울과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다윗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8:29~33).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의 재건 앞에 백성들이 한마음을 가지기를 격려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열세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이후 유다 지파와 연합하는 역사를 보입니다. 지파 간에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진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의 뜻이 임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2. 역대기 저자는 지파 간의 연합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합심하여 이루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4:2~3,14~15 ²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못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³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예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¹⁴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¹⁵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29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Jeiel the father of Gibeon lived in Gibeon. His wife's name was Maacah,

30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비알과 나답과

and his firstborn son was Abdon, followed by Zur, Kish, Baal, Ner, Nadab,

31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Gedor, Ahio, Zeker

32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and Mikloth, who was the father of Shimeah. They too lived near their relatives in Jerusalem.

33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Ner was the father of Kish, Kish the father of Saul, and Saul the father of Jonathan, Malki-Shua, Abinadab and Esh-Baal.

34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The son of Jonathan: Merib-Baal, who was the father of Micah.

35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The sons of Micah: Pithon, Melech, Tarea and Ahaz.

36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Ahaz was the father of Jehoaddah, Jehoaddah was the father of Alemeth, Azmaveth and Zimri, and Zimri was the father of Moza.

37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마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Moza was the father of Binea; Raphah was his son, Eleasah his son and Azel his son.

8:33, 34 에스바알, 므립바알

본 족보에는 '바알' 즉 이방 신을 뜻하는 단어가 나타난다. 포로 후대에는 금지된 단어가 족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포로기 전에 기록된 족보를 참고했으리라고 전해진다. 한편 '에스바알'은 다른 곳에 서는 이스위 혹은 이스보셋으로 알려지고(삼상 14:49; 삼하 2:8), '므립바알'은 므비보셋을 의미한다(삼하 4:4).

27
—
목

- 38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Azel had six sons, and these were their names: Azrikam, Bokeru, Ishmael, Sheariah, Obadiah and Hanan. All these were the sons of Azel.

- 39 그의 아우 에섹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The sons of his brother Eshek: Ulam his firstborn, Jeush the second son and Eliphelet the third.

- 40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The sons of Ulam were brave warriors who could handle the bow. They had many sons and grandsons - 150 in all. All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Benjami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베냐민 출신 사울 왕이 알려집니다(29~33).

베냐민 지파의 반복적인 등장은 사울,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국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에 본 단락은 본격적으로 사울의 탄생을 알리며 먼저는 그의 조상의 계보를 전개합니다. 조상 여이엘로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족보에는 흥미롭게도 28절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32절) 이로써 역대기 저자는 내용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 주목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기반을 마련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두 번째 왕 다윗의 역사를 회고시키는 의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소개가 단 한 줄로 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33절). 그럼에도 성경은 요나단의 계보를 이어 가며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패망한 사울이지만, 다윗을 도와 은총을 베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이어 가신 여호와와의 은혜를 증언하여 줍니다.

2.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34~40).

블레셋과의 전투로 사울 가문은 패망 직전이었습니다(삼상 31장).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네 아들 중 ‘요나단’이 지목되며 후손의 계보가 다시금 전개됩니다.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친구와 맺은 약속에 신실함을 입증한 그의 삶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크고도 오묘하신 섭리와 인간의 겸손하고도 작은 순종이 녹아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에 존립의 위기를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아들과 손자가 무려 150명이나 되는 가문이 탄생하기도 합니다(40절). 그러니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사울에서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서 틈 사이로 흐르는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고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8:11~14 ¹¹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¹²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¹³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¹⁴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All Israel was listed in the genealogies recorded in the book of the kings of Israel. The people of Judah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because of their unfaithfulness.

- 2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Now the first to resettle on their own property in their own towns were some Israelites, priests, Levites and temple servants.

-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Those from Judah, from Benjamin, and from Ephraim and Manasseh who lived in Jerusalem were:

- 4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Uthai son of Ammihud, the son of Omri, the son of Imri, the son of Bani, a descendant of Perez son of Judah.

5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Of the Shilonites: Asaiah the firstborn and his sons,

6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육백구십 명이요

Of the Zerahites: Jeuel. The people from Judah numbered 690.

7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므
술람의 아들 살루요

Of the Benjamites: Sallu son of Meshullam, the son of Hodaviah, the son of Hassenuah;

8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웃시의 아들 엘
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
람이요

Ibneiah son of Jeroham; Elah son of Uzzi, the son of Micri; and Meshullam son of Shephatiah, the son of Reuel, the son of Ibnijah.

9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구백오십육
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The people from Benjamin, as listed in their genealogy, numbered 956. All these men were heads of their families.

9:2 노디님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 전쟁포
로 출신으로 성전 봉사
를 위한 노예였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1~2)

1-8장에 걸쳐 족보가 진행되는 동안 주목할 만한 저자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언급되는 곳에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삶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었습니다(5:25-26). 이것이 그가 아베스나 므낫세 지파 공동체의 기도문을 함께 삽입하며,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가르친 이유이기도 합니다(4:10; 5:20). 저자의 입장은 바벨론 유배라는 아픔의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드러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1절)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며 자유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운명이 사실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서두에 실으며 성경은 고국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그 땅을 처음 밟은 사람들을 가리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2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히 치른 백성이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열정이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3~9).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 다음으로 바벨론에 유배갔다가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3절) 역대기서에 의하면 포로기 이후에 본래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크게 남유다 지파(베냐민, 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에브라임, 므낫세)로 구분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첫째, 지금까지 소개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포로기 이후의 백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남유다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의 비전이 제시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는 줄곧 전해져 왔는데, 내용이 반복되는 만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치지 않으시는 열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영광되이 높이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신실한 하루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0:11~12 ¹¹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 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¹²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9

욥기 9:25~35

토요일

오늘의 찬송 621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말씀 속으로

25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My days are swifter than a runner; they fly away without a glimpse of joy.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They skim past like boats of papyrus, like eagles swooping down on their prey.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If I say, ‘I will forget my complaint, I will change my expression, and smile,’

28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I still dread all my sufferings, for I know you will not hold me innocent.

29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Since I am already found guilty, why should I struggle in vain?

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Even if I washed myself with soap and my hands with washing soda,

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 하리이다

you would plunge me into a slime pit so that even my clothes would detest me,

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 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He is not a man like me that I might answer him, that we might confront each other in court,

33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If only there were someone to arbitrate between us, to lay his hand upon us both,

34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 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someone to remove God's rod from me, so that his terror would frighten me no more,

35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Then I would speak up without fear of him, but as it now stands with me, I cannot.”

9:26 빠른 배
히브리어)갈대배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의 신앙관에 변화가 생깁니다(25~31).

좁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고난 속에서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알고 믿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고 보니 하나님은 재난당하는 자를 조롱하시며, 재판관의 눈을 가려 공정한 판결을 막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9:23~24).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생각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에 탄식을 거듭합니다. 마침내는 그간의 모든 삶이 헛되다는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29절) 친구들도 어디 하나 제 맘 같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읍소해 줄 마땅한 이도 없다는 생각에 욥은 그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로운 운명을 직감합니다.

2.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32~35).

짓눌려오는 마음을 부여잡은 채 속시원히 하소연할 재판장을 찾아도 보지만, 욥의 갈망은 탄식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련만, 함께 법정에서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32~33절) 그런데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에게서 느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욥은 빼앗긴 재산이나 목숨을 잃은 자녀의 생명을 되돌려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혀를 내두를 만큼 의연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1~2장). 그런 그가 지금은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온 삶을 알아달라고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어쩌면 욥의 탄식은 잘못 살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도, 자식도 아닌 삶에 대한 정당한 판결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9장부터 욥의 생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2.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우리는 때로 원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욥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욥기서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9:4~8 ⁴ 주님 알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⁵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⁶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⁷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⁸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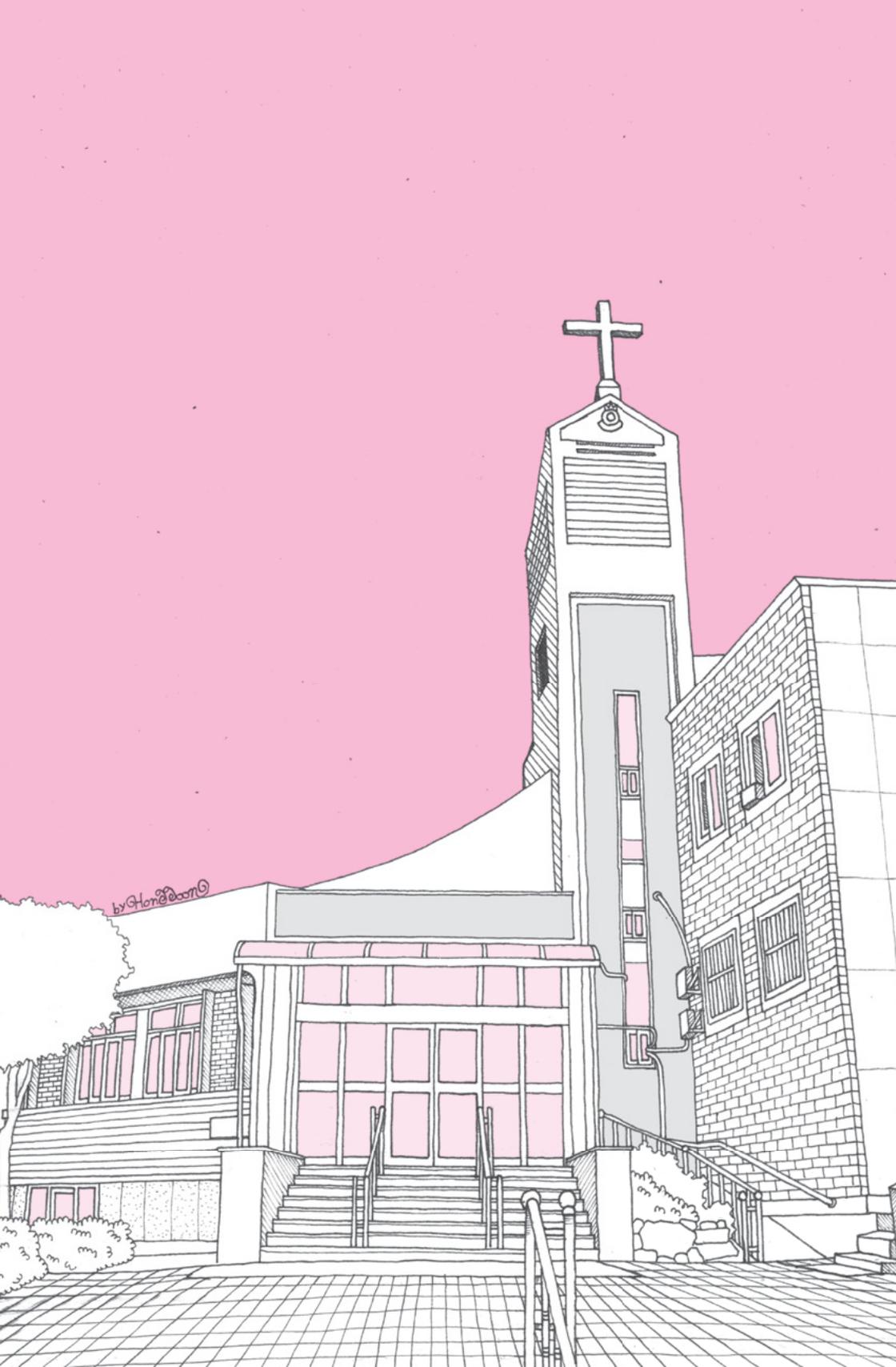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구세군 대전영문(현 구세군대전중앙교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56번길 109

사실 충남의 내륙 깊숙한 곳에 연이어 있던 회덕과 진잠과 유성은 개화의 흐름과는 별 관련이 없던 곳이다. 금강 하구에 있던 충남의 다른 도시들같이 상업적 유통이 활발하다거나, 홍주나 공주처럼 사람과 물자들이 몰려들었던 지방 행정의 중심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곳 회덕의 남쪽인 신내면 대전리에 대전역이 들어섰다. 대구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논산-공주로 우회하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뻗어야 적은 비용으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경부선 철도 공사를 위한 1900년 실측의 결과였다. 1904년 세워진 대전역과 경부선 철도 공사는 식민도시 대전의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것은 회덕의 주민 집단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후 일본인을 포함한 대전 거주 인구는 날로 증가하였고 결국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었다.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정보 등 국내의 상황에 민감했던 미국 선교사들도 이때부터 대전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1907년 이후 여러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윌리엄 부스에 의해 설립된 구세군은 1937년 10월 19일에 구세군 대전영문을 설립한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유적>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물뱅이 www.hongsoon.net



30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7/30~8/5 내가 나쁜 길을 지나갔는지 나를 살펴보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 139:24)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욥기 10:1~22

월요일

오늘의 찬송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말씀 속으로

-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I loathe my very life; therefore I will give free rein to my complaint and speak out in the bitterness of my soul.

- 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I will say to God: Do not condemn me, but tell me what charges you have against me.

- 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Does it please you to oppress me, to spurn the work of your hands, while you smile on the schemes of the wicked?

- 4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Do you have eyes of flesh? Do you see as a mortal sees?

-
- 5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Are your days like those of a mortal or your years like those of a man,

- 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that you must search out my faults and probe after my sin-

- 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대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대

though you know that I am not guilty and that no one can rescue me from your hand?

- 8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대

Your hands shaped me and made me. Will you now turn and destroy me?

- 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Remember that you molded me like clay. Will you now turn me to dust again?

10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Did you not pour me out like milk and curdle me like cheese,

11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clothe me with skin and flesh and knit me together with bones
and sinews?

12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
셨나이까

You gave me life and showed me kindness, and in your
providence watched over my spirit,

13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이 뜻이 주
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But this is what you concealed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this was in your mind:

14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If I sinned, you would be watching me and would not let my
offense go unpunished.

-
- 15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If I am guilty - woe to me! Even if I am innocent, I cannot lift my head, for I am full of shame and drowned in my affliction.

- 16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짧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If I hold my head high, you stalk me like a lion and again display your awesome power against me.

- 17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You bring new witnesses against me and increase your anger toward me; your forces come against me wave upon wave.

-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Why then did you bring me out of the womb? I wish I had died before any eye saw me.

- 19 있어도 없던 것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니이다

If only I had never come into being, or had been carried straight from the womb to the grave!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Are not my few days almost over? Turn away from me so I can
have a moment's joy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before I go to the place of no return, to the land of gloom and
deep shadow,

22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이 없
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to the land of deepest night, of deep shadow and disorder,
where even the light is like darknes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동정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1~12).

의인과 악인,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구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욱의 생각은 급기야 악인을 돕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데 이릅니다(3절).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인생이 어찌 하루 아침에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욱의 원망은 신이신 하나님이 과연 인간이 겪는 고통을 알 수가 있겠냐며 반기를 들게 만듭니다(4~5절). 태어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지어진 인생을 체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죄한 자신을 이토록 죽음의 모퉁이로 내몰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6절). 그리고는 태고적에 자신을 빚으시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호흡의 출입을 지키기로 작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나길게 원망하며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곤란스러워해 합니다(8~9절).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마저 자신을 외면한 듯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항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2. 절망은 희망을 가립니다(13~22).

지속되는 비통함이 욱으로 하여금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 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15절)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일은 물론이고, 살아보니 의인 또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회한과 덧없음이 그를 가득 사로잡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살아갈 이유였고 그로 겸손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지만(1:5), 이제는 흑역사 죄를 짓지는 않는지 종일 지켜보시는 눈빛이 따갑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급기야 삶과 죽음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운명을 거부하며 도리어 삶과 죽음을 결정짓기 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18~19절). 그야말로 욱에게는 더 이상의 기쁨과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욱은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아픔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문제, 아픔, 생각을 못박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2.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자 욱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마음을 거두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2:1~5,8 ¹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²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보을 수 있을까? ³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⁴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⁵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⁸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얼굴 빛을 드사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구하옵나니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소란 속에서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뜻을 식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2023. 4.19(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슬픔의 삼각형〉을 통해 본 자본주의라는 이상

글 황영미 (집사)



우상이 되어 버린 자본주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출 34:14)

최근 세계가 신자본주의화되면서 돈이 모든 가치에 최우선시되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자본이 인간의 계급을 나누면서 금수저, 흙수저 같은 단어도 일상화되었다. 모든 잘못이 돈으로 해결되는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본주의를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독교인을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지도 모를 일이다.

영화 <슬픔의 삼각형>의 상황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자본주의의 폐해는 풍요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하였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들어와 있어서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을 만들기도 한다. 자본의 논리에 성역은 없다는 주제를 역설적으로 그리는 202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슬픔의 삼각형'(5월 10일 개봉)은 루베 외스틀룬드가 연출했다. 그는 예술계의 위선을 폭로한 '더 스퀘어'(2017)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이달 16일 개최되는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슬픔의 삼각형' 오프닝은 모델 오디션 대기실에서 서 있는 남자 모델들을 비추면서 시작한다. 현장 취재 요원이 그들에게 비싼 상표 광고와 싼 상표 광고의 표정을 바꿔 가면서 지어보라고 주문하자 자본이 표정을 결정한다는 듯 모두가 표정을 바꾸면서 응한다. 모델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칼(헤리스 디킨슨)이 사진과 다르게 보인다며 칼의 미간 주름, '슬픔의 삼각형'을 펴보라고 말하고 칼이 나가자 보톡스를 넣어야겠다고 한다.

이 영화는 일상의 자본주의, 권력화된 자본주의, 대체된 자본주의를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연애 중인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인 칼과 아야(찰비 디 크랙)가 데이트 비용을 서로 미루면서 사랑에 위기 전선을 형성하는 이야기다. 칼은 계산서가 테이블에 오자 '고마워 자기야'라고 말해 버리면 자신이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면서, 아야도 같이 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잖아" 하면서 아야가 내민 카드는 정지된 카드였다. 결국 칼이 레스토랑 식대를 계산하게 되면서 남자한테 돈 쓰게 만드는 게 당신의 능력이냐고 화를 내고, 아야는 호텔도 자신이 협찬받은 거라며 다투고는 각자의 방으로 간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SNS 인플루언서인 아야가 협찬을 받은 크루즈에 탑승하여 비키니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칼이 그녀를 찍고 있다. 이 파트에서 크루즈 공간은 자본으로 계급화된 인



간 관계도를 좀 더 요지경 속 모습으로 보여 준다. 크루즈 승무원들은 일 시작 전 단합 대회에서 고된 서비스업이지만 참고 파이팅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외치며 친절을 자본과 연결시킨다. 이 크루즈는 '타이타닉'처럼 돈으로 못할 게 뭐냐는 식으로 살아가는 세계의 부자들이 났지만,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부자 손님은 자쿠지를 지키는 승무원이 안쓰럽다며 힘들게 그러지 말고 옷 벗고 물에 들어가서 즐기라고 한다.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절하는 승무원에게 부자 손님은 이 배를 내가 다 살 수도 있다며, 자신의 말을 들어라고 호통을 친다. 승무원이 어쩔 수 없이 걸옷을 벗고 자쿠지에 들어가는가 하면, 선장 토마스(우디 해럴슨)는 크루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에서 술 먹고 즐기는 등 배가 기우뚱할 때마다 불안감을 준다.

3부에서는 크루즈가 난파된 후 무인도에서 새롭게 형성된 계급 구조를 보여 준다. 7인의 생존자들만 겨우 도착한 무인도를 배경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을 잡는다. 물고기를 잘 잡는 크루즈 청소부는 해치를 발견하고는 그곳을 자신의 아지트로 삼는다. 크루즈에서는 청소부였지만, 외딴 무인도에서는 그의 말을 거역할 자가 없다. 안 그럼 식사 제공을 못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자는 해치 안에 남아 있던 크래커를 얻어먹을 수 있다. 크래커라도 얻어먹고 해치 안에서의 편한 잠자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칼은 청소부의 부름에 응한다. 외딴 공간에서의 권력 구조는 반드시 자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의 단맛에 취하고, 없는 자는 비굴하게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이 영화는 냉소적인 코미디 형식으로 자본주의를 조롱한다.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이 영화에서처럼 자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성경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계속 흔들리고 갈등에 사로잡힌 영혼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17)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날 때부터 인간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진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끌리거나, 돈만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때부터 현실이 바로 지옥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힘써 일할 때 기독교인은 자본주의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슬픔의 삼각형>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일간스포츠 '황영미 시네뷰'의 2023.05.18. 필자의 비평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5170043>)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글 교회학교



‘마음’이 모이다

소년부 강재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망교회에 다녔지만 교회 올 때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간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에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운 여름에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싶었는데 이틀이나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번 만나 본 적 없는 친구들과 성경학교를 함께해야 하니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성경 말씀과 활동도 처음에는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작년 여름성경학교 이후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리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작년 말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도 자주 결석하게 되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몸이 안 좋아지면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되니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울적해지던 때에 소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를 위해 보내 주시는 기도문들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고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어 기다렸던 소년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소년부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섬겨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했던 저를 바꿔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모이다

소년2부 한보라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쉽기도 합니다. 뒤섞인 감정과 공부와 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요즘 저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부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문 앞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환영은, 한 주간 힘들었던 저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한 시간의 부서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섬겨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원활한 방송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선생님들, 찬양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장난치고 떠드는 친구들을 안아 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소년부는 '사랑이 모인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따뜻한 섬김을 받아 아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이 모인 곳 소년부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을 사랑이 모인 곳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꿈이 모이다

영어아동부 김범준 선생님

저는 유년 시절부터 소망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때는 성가대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중 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에 차서 보내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도 제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중등부, 고등부로 교회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제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나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면서 저 역시도 나중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함께 알게 된 친구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기도 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첫 사역지로는 고등 2부를 선택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입시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며 저 역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영어아동부에서 5학년 남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아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주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주일학교에 출석해 주는 모든 아이들이 그저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고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어아동부 김한준

저한테 가장 큰 시험을 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랑 제 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되는 마음에 기도해요. 떨리지만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당일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영어아동부 이영도

지난주 수요일에 발야구 시합이 열렸어요. 지난번 시합이 열렸을 때는 계속 저서 속삭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발야구 시합에서 5:4로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어아동부 송선우

저는 예배 올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와요. 예배 전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영어아동부 예배에서 ‘the story before the story’ 라는 영상을 보여 주시는데 말씀을 풀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가대도 할 예정이에요.

영어아동부 신재민

저는 여름성경학교가 너무 기대돼요. 여름성경학교 때 만들기와 그림 그리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영어아동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2022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영어아동부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기대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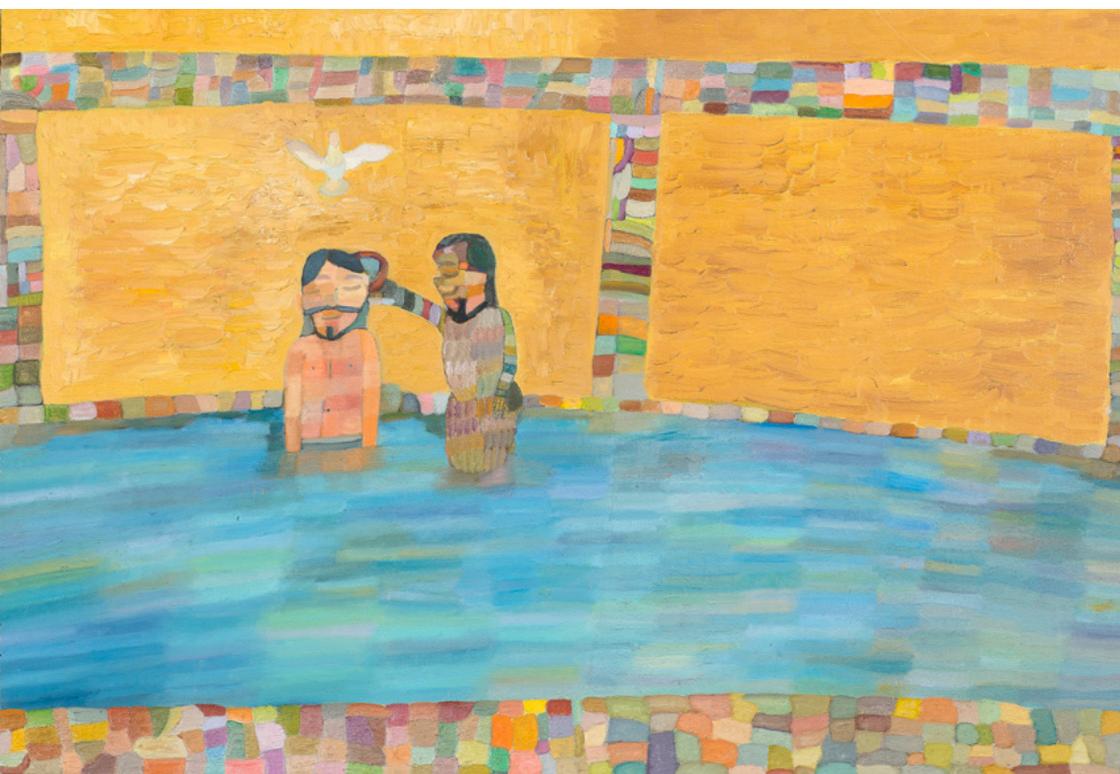
세례받은 예수님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마태복음 3장

¹⁶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¹⁷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98 X 68 cm
Oil on canvas
2016



현화이야기 19

7월,
우리의 고백



5월 21일 주일

글 박미아 (권사)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28)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5월 28일 성령강림주일

글 최순옥 (권사)

성령이 임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성령의 사랑이
온 교인들에게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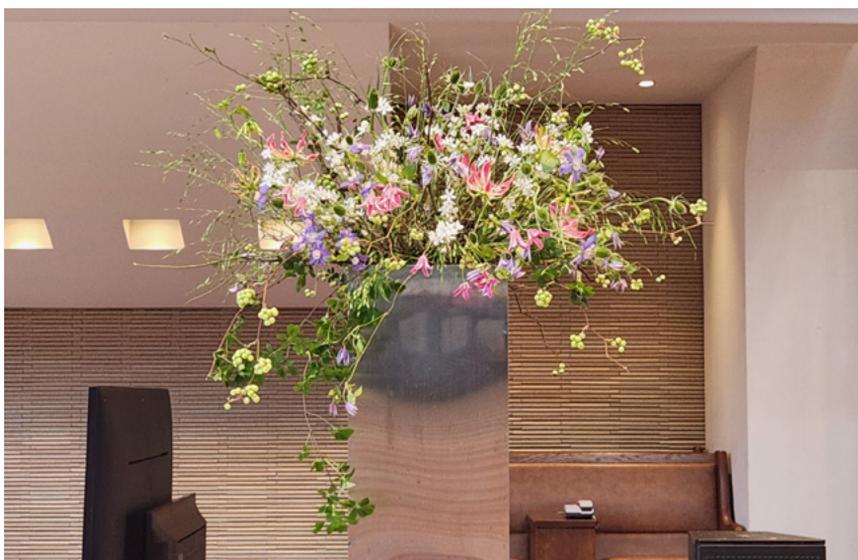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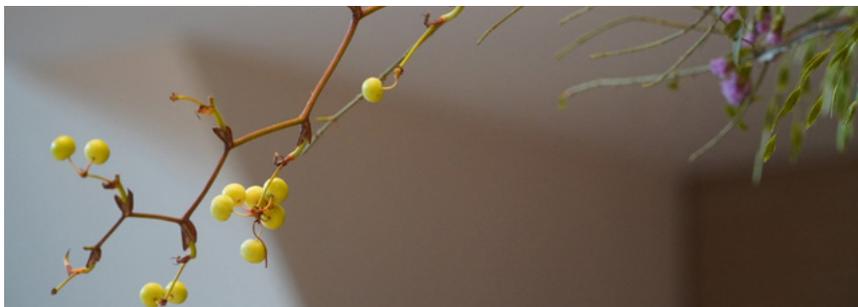


6월 11일 주일

글 허유선 (권사)

초하^{草花}

싱그런 초여름의 들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열망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원네트워크 원장)

종교 개혁으로 말씀에 충실한 신앙,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신앙은 점차 화석화된 교리로, 개혁의 열정은 광신으로 변해 갔다. 내가 믿는 신앙만이 바른 정통이라는 고집불통은 결국 종교 전쟁이라는 재앙을 낳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차도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웅덩이에 고인 물이 되고 말았다. 이때 제2의 종교 개혁을 표방하며 나선 인물이 필립 슈페너(1635-1705)이다. 흔히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페너는 《경건한 열망》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 혹은 16세기에 시작되었다가 교리적 정통주의로 인해 중단된 개혁 운동의 완성을 제안했다. 따라서 이 책이 출간된 1675년을 경건주의의 시작으로 본다.



슈페너는 1635년 현재의 프랑스 리보빌레Ribeauvillé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17세기 당시에 라폴츠 바일러Rappoltsweiler라 불린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다. 지금도 리보빌레의 슈페너 광장 옆에 있는 개신교회 안에는 슈페너의 초상이 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그야말로 유럽의 격변기였다.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나뉘어 유럽 전체가 30년 전쟁(1618-1648)을 치르는 중이었다. 전쟁 후 남겨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산, 도덕의 붕괴와 영적 퇴락은 슈페너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림 1

(그림1)은 슈페너가 공부하고 가르치던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신학부 건물이다. 스트라스부르는 16세기 종교 개혁 시기 마테우스 켈, 마르틴 부처, 장 칼뱅과 같은 개혁자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알자스의 중심 도시이다. 스트라스부르 대학 전신은 16세기 인문주의자 장 슈투름이 1538년 세운 감나지움(Jean Sturm Gymnasium)이다. 그 후 1621년 페르디난트 2세 황제 때 대학교로 다시 설립되었다. 박사 학위를 받던 날 슈페너는 수잔네 에르하르트와 결혼했고, 슬하에 11명의 자녀를 두었다. 지금도 스트라스부르 신학부 건물 옥상에는 학교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입상이 보이는데, 루타칼뱅 슈투름 등과 함께 슈페너도 스트라스부르 대학을 빛낸 인물로 그곳에 당당하게 서 있다.

(그림2)는 슈페너가 20년 동안(1666-1686) 목회했던 교회이다. 슈페너는 대학에서 계속 가르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1666년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그를 수석목사로 청빙했다. 명패 중앙을 보면 교회와 사회 개혁자로서 슈페너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왼편에는 《경건한 열망》 초판본 표지가, 오른편에는 슈페너 초상이 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슈페너의 옛집이 지금은 순례자와 여행객을 맞는 숙소 Hotel Spenerhaus로 사용되니 슈페너의 경건주의 정신을 배우려는 순례자라면 꼭 찾아보길 권한다.



그림 2

슈페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20년을 묵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670년 '경건 모임(Collegium pietatis)'을 조직하고 새로운 경건 운동과 성경 연구를 통한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그가 **《경건한 열망》에서 제안한 개혁안들은 성경 연구 전념, 만민제사장설 구체화, 이문보다 실천 강조, 교파 간 신학적 논쟁 제한, 경건의 실질적 구현에 초점을 둔 신학 수업, 설교의 초점 변화 등이었다.** 이것은 당시 독일에 편만했던 정통주의에 대한 맹렬한 반격이었으며, 삶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교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슈페너의 제안은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자 회복이었다. 슈페너에 의해 시작된 독일 경건주의의 지도력은 이후 할레 대학교의 아우구스트 프랑케를 거쳐, 할레 대학교가 배출한 또 한 명의 인물인 니콜라우스 친첸도르프에 의해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된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글 신형섭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가정예배, 그 불편한 현실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몇 번인가요?”

미국 남침례신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인 티모시 폴 존스¹⁾ Timothy Paul Jones 교수가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동의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던진 질문이다. 그런데 질문의 결과는 처참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¹⁾ 머리로는 자녀의 신앙 형성에 부모로서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정작 가정 안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책임을 교회에 넘겼기 때문이며, 부모로서의 영적 책임을 자녀들을 교회에 안전히 데려다주는 영적 배달 서비스 정도로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했다.²⁾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 최근 서울 시내 기독교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결과로 1위는 어머니(54%)였고, 2위는 아버지(33%)였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비대면과 급격히 변하는 세상이 아이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고 예상하였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여전히 자녀 세대의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신앙적 인플로언서'는 부모라는 것이다.

대안이 아니라 원안으로의 가정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에 기록된 많은 목회 문헌들은 코로나 팬데믹 전환기에 있는 한국 교회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적 대안^{alternative practice}으로서의 가정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일관적으로 명령해 오신 성경적 원안^{original plan}임을 분명히 증언한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욥, 느헤미야, 에스라, 예수님 시대 믿음의 가정들, 초대 교회에 기록된 믿음의 가정들, 사도 바울을 통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 생활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가정의 유형과 상황 안에서 드러질 예배를 명하시고,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천년 교회는 성경적 명령에 순종하여 가정예배를 실천한 교회와 가정의 현장마다 그 시대의 악함과 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 사실을 보여 준다. 초대 교회 역사학자인 리만 콜만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가정예배가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드러졌음을 언급하

1)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Indianapoli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28

2) Voddie Baucham Jr., Family Driven Faith: Doing What It Takes to Raise Sons and Daughters Who Walk with God (Wheaton: Crossway, 2007), 9;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28.

며, 이 자리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음을 강조한다.³⁾ 2세기의 터툴리안 역시 믿음의 가정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거룩한 의례를 꼽는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예배가 드려진 것이다.⁴⁾ 가정예배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 사항임에 대한 묵회적 지도와 기록은 종교개혁자들의 묵회서신과 지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정이 야말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이자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가정은 가정 안에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⁵⁾ 존 칼빈 역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명명하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어지는 언약공동체이기에 가정예배는 믿음의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공적인 책임이라고 말하였다.⁶⁾

가정예배,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와 기준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부터 확인해 보자면 가정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례’이다.⁷⁾ 가정예배는 시대마다, 전통마다 다양한 정의와 형식들로 이해되고 실천되었으나 중심에는 늘 ‘가족’, ‘기억’, ‘감사’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정예배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성과 가정예배에 관한 문헌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준다. 그러나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가정예배의 핵심적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오답노트를 고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가정예배 오답노트 1. 형식이 아니라 사건

가정예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가정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예배의 축소판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물론 주일 오전예배처럼 경건함과 형식을 갖추어 가정예배를 드리기란 너무도 이상적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이 아니

3) Lyman Coleman, *The Antiquities of the Christian Church* (Andover and new york: Gould, Newman&Saxton, 1841), 376-77.

4) Tertullian, *Ad uxorem* (“to my wife”) Book II, ch. 8. “Tertullian project,” http://www.tertullian.org/works/ad_uxorem.htm [2021.10.30. 접속]

5)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21-25,”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MO: Concordia, 1964), 384.

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2002), 149.

7) 신형섭, 『가정예배건축학』, 95.

8)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231.



라 사건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예배, 이삭의 가정예배, 야곱의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간에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 하는 '사건'에 주목하셨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수 찬정지까지도 명한 청교도 시대에도 가정예배에 관한 기준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건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기록된 가정예배 지침도 형식에 대한 언급이 아닌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함³⁾”이라는 사건이 본질적인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는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의 태도를 고치느라 애쓰는 교정^{playing}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기도^{praying}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수준을 아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우리 눈에 보기에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의 자녀의 행동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된다. 가정예배의 자리에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 자녀에게 믿음은 줄 수는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부모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믿음의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순종의 자리를 은혜의 통로 삼아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 주신다.

본 원고는 필자의 저서 『가정예배 건축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7)에 실린 “들어가는 말” 및 “1장”과 목회와신학에 기고한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적 원안이다”(2022년 1월호)의 원고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글 김지현 (집사)



2022년 12월 중순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들 곁을 떠나시고 충격과 슬픔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버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곁에서 항상 지지해 주고 지켜주시던 존재의 갑작스런 상실로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이 슬프고 고단하던 때에 저와는 다른 종류의 상실을 맞닥뜨린 젊은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6세 여환자였는데,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손발의 부종이 결국 전신으로 진행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창백한 낮빛에 얼굴부터 양측 상·하지 모두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원 2개월 전부터는 식욕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2주 전 즈음부터는 오심, 구토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에 의하면 성장하여 기억이 있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하고 보니 조절되지 않는 악성 고혈압, 심한 빈혈, 전해질 불균형, 잔여 신기능 10% 전후의 신장 기능 저하, 대사성산증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복부 CT 검사에서는 작아져 있는 신장이 확인되어 원인 미상의 만성콩팥(신장)병 5기(말기신부전)로 진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비교적 여러 신장 질환들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질병 중 하나가 만성콩팥병입니다. 신장은 길이 10~14cm, 폭 5~6cm, 두께 약 2.5~3cm 정도의 적갈색 강낭콩 모양의 장기로 등과 복강 사이의 후복강이란 곳에 척추를 중심으로 양측에 위치하는데, 물과 노폐물을 배설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조혈호르몬을 분비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콩팥병이 생기면 이러한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부종, 고혈압, 빈혈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신장 기능에 관한 검사가 가능하고, 이외에 필요에 따라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 신장 조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혈액 검사를 통한 신기능 검사(사구체 여과율)가 간단하지만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측정된 “크레아티닌”이란 수치를 사구체 여과율 추정 공식에 입력하여 나오는 값에 따라 대략적인 잔여 신장 기능을 추정하게 됩니다.

언급된 여러 가지 검사들에서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만성콩팥병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신장의 손상이나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1기** : 신장 기능 검사(사구체 여과율)에서는 정상이나 소변 검사 또는 초음파, 복부 CT 등에서 이상이 관찰.
- **2기** : 신장 기능이 정상의 69~89%로 약간 감소. * 1~2기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당뇨,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을 찾아 치료하고,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3기** : 신장 기능이 30~59%로 감소. * 신장 기능 감소에 따른 합병증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 치료해야 하며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4기** : 신장 기능이 15~29%로 감소. *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투석 방법 및 이식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 **5기 (말기신부전)** :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심하게 감소. * 혈액 투석, 복막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을 시작합니다.

만성콩팥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콩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경우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질환의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다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신장의 기능 감소 정도 및 합병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장내과전문의를 통하여 개인에게 맞는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기신장병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일괄적으로 혈액 투석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환자는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혈액 투석을 유지하면서 그간 호소하던 모든 증세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환자가 상실의 고통과 현실적 문제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투석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실의 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고통의 무게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이 상실입니다. 특히 죽음,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빈부귀천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는 대상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상실감, 좀처럼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기도 마련입니다. 앞의 환자와 같이 질병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으나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에 의한 절망과 상실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여정에서 상황과 시기만 다를 뿐 저마다 상실을 마주하거나 혹은 시한부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위로받으며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그리스도인은 슬픔과 고통을 홀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한마음으로 교제하고 동역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문제들이 알맞게 해결되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별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쉽지 않은 많은 시간들을 참으로 기적같이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잘 견뎌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픔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새겨진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아프고 지친 나를 업고 오신 주님의 발자국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날마다 쉽없이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고통에서 잠잠할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2)

6월 첫째 주

2023 장로선거

2023년 장로선거 1,2차 투표가 지난 5월 14일과 21일 두 주에 걸쳐 진행됐다.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도하며 투표에 임했다. 올해도 1,2차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소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해 장로 투표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 올해는 기존 개표 시간보다 15분 연장한 오후 5시 15분까지 진행되어 청년들이 뜨거운 참여율을 보였다. 교육2부 대학, 청년, 청년플러스 부원들은 투표장을 배경으로 순원끼리 인증샷을 찍는 등 SNS 인증샷 이벤트도 마련했다. 1차 개표에서는 투표자 3,207명 중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득표 상위 12명의 후보자가 2차 투표 후보로 선정됐다. 한 주 뒤인 21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자 3,281명 가운데 3분의 2인 2,188표 이상을 득표한 김문자 권사, 임종세, 홍선표, 황성환 집사가 장로로 피택됐다. 장로 피택자들은 부족한 모습에도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교육과 노회 장로 고시를 거쳐 올 11월 임직식에서 장로 임직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진심과 성심으로 나선 올해 장로 당선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 시대 주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6월 셋째 주

사회봉사학교



사회봉사부 주최로 지난 3월 개강한 사회봉사 학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는 소망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다. 첫 시간에는 사회봉사부 부장 장기수 장로의 기도에 이어 사회봉사부 담당 주요한 목사가 ‘교회, 성육신의 연장’을 강의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참여하는 실습 시간에는 장애인, 독거 노인, 아동 청소년, 노숙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았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방과후 돌봄 시설인 ‘새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초, 중, 고 자녀들을 만났다. 센터를 찾은 실습생들은 보육과 센터 청소, 교육, 식사 준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섬겼다. 청량리 밥퍼 무료 급식소에서는 노숙인과 빈곤층 어르신 500여 명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김치전, 잡채, 미역국을 담은 한 끼를 차려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의 고달픔을 달랬다. 급식이 끝난 뒤에도 열심히 남은 음식과 식기를 치우고, 설거지, 식당 청소까지 깔끔하게 뒷정리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로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 담장을 넘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소망 성도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나누어지길 소망한다.





2023 | 07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6월 24일(통권 139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q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여름 신앙강좌

선교관 2층 예배실

강좌 세부 사항 안내

일자	강사	주제
7/21(금)	윤 환 목사	일상의 신앙 - 세족식과 성찬식
7/28(금)	장재원 목사	영적 건강 회복을 위한 길
8/4(금)	권정혁 목사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8/11(금)	김주경 목사	<디다케>를 읽다
8/18(금)	유지미 목사	민낯 인간 심층 연구 (『걸리버 여행기』)